

Sulwhasoo

VOL.95

Sulwhasoo

VOL.95 SPRING 2020

Sulwhasoo

SPRING 2020



겹겹의 크고 작은 아치와 빛나는 직선들이 그려낸 풍경 앞에 서면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하다. 위대한 자연을 담담하게 표현해 오히려 깊은 서정이 담긴 그런 시 말이다. 한국의 수려한 산세를 닮았고, 우리가 엿어온 빛나는 시간이 느껴져 이내 숙연해진다. 이렇게 시를 닮은 안온한 작품을 만든 노일훈 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건축을 전공하고 물리학과 수학, 융합과학을 바탕으로 한 작업 방식을택했다. 그가 쓴 시의 주제는 자연이고, 시의 언어는 첨단 소재와 기술인 셈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을 더한 것은 노일훈 작가만의 독창적인 수사법이다.

'파라볼라 시리즈'는 광섬유와 탄소섬유를 활용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조형성을 표현했다. 수많은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화한 뒤 수공으로 꺾고, 가닥을 손수 꼬아 포물선을 만든다. 첨단 소재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인간의 손길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형태가 완성된다. 자연에 대한 경외,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성, 전통 수공예를 존중하는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조옹하고 공명하면서 그려낸 입체적인 서정은 고요한 시심詩心을 깨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파라볼라 파라디소 Parabola Paradiso, 포물선 천국 / 노일훈
L: W25xL200xH190cm, S: W18xL100xH95cm / 2017

Standing in front of the landscape drawn with layers of variously sized arches and shimmering lines, you feel as if you are reading a poem, one that is lyrical as it expresses the magnificence of nature in monotonous tones. It overwhelms you because it resembles the magnificent mountainous landscape of South Korea and the glittering time we have woven. Ironically, artist Il Hoon Roh, who created such a warm and poetic piece, majored in architecture and chose to work with methods based on physics, mathematics, and convergence science. The subject of his poem is nature, and the languages that he used are advanced materials and technology. It is his unique rhetoric to add the traditional method of handcraft.

The Parabola Series uses optical and carbon fibers to express the beautiful forms found in nature. The artist created the structure through countless experiments and computer simulations, and bent and twisted the fiber strands by hand to make the parabolic curves. The latest high tech materials and technology are utilized, but the final creation with its beauty is only realized and completed through human touch. The artist's delicate touch in weaving his admiration of nature and willingness to experiment with cutting-edge technology, together with his respect for traditional handcraft, resonate to create multi dimensional lyrics that awaken your love of poetry.

스스로 빛나는 건강한 피부 바탕
5세대 윤조에센스

NEW First Care Activating Serum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가 피부 노화 요인을 조화롭게 케어하여,
잠재된 피부 능력을 깨워주는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입니다.

Essential anti-aging booster serum featuring
the 5th-gen JAUM Activator™ that bring out the youth potential
in skin to make sure healthy radiance.



Sulwhasoo

SPRING 2020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의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액티베이터™'와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Activator™,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20,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Australia.



Sulwhasoo

VOL.95 SPRING 2020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메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피부를 지키고 아끼는 지극한 지혜
- 12 **피부 섬기기**
매일 더 좋아지는 피부를 위한
첫 단계 안티에이징
- 18 **新 장인을 만나다**
유연함을 다듬은 견고함
- 24 **공간미감**
서촌에서 살아보는 여행
- 30 **건너다**
드높은 십연의 명작

발행일·2020년 4월 1일(통권 제95호)
발행인·인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은주, 정미정)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디자인·이경보
사진·GURU visual 02)745-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강행글윤리위원회의 신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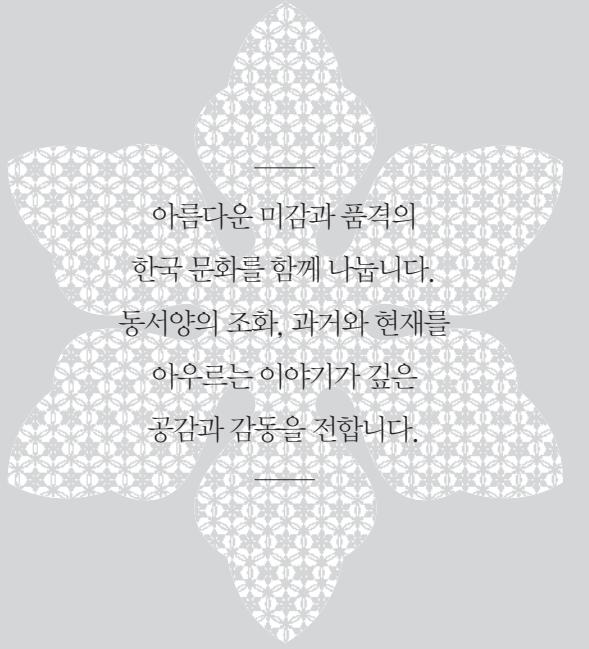
누 리 다

- 38 **설화인**
폼 잡지 않아 폼 나는 사람
- 46 **어우러지다**
담백하고 대담한 마음의 그림
- 52 **설화풍경**
매화가 필 무렵
- 56 **설화보감**
꽃빛 머금은 꽃다운 찻자리
- 62 **아름다운 기행**
천상의 아름다움, 그 이상에 다다르려는 마음
- 68 **설화수를 말하다**
완벽한 아름다움의 환희
- 74 **설화공간**
궁극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설화수의 터치

- 78 **배움의 기쁨**
끈이 예술이 되는 손끝의 기적
- 82 **한국의 멋**
하나의 인생길을 다정하게 날으소서
- 84 **설화애장**
공간에 불어넣는 영혼
- 86 **읽다**
한옥에서 느끼는 매화의 향기
- 90 **집 안 단장**
다정한 초록의 시간
- 92 **봄 단장**
화시한 마음을 담아 든 작은 봄

- 94 **프로덕트맵**
- 98 **독자 선물**

페
리
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피부를 지키고 아끼는 지극한 지혜

Insightful Wisdom to Protect and Care for Your Skin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막아야 할 것은 강력하게 방어하고, 특별한 한방 성분으로 피부를 편안하고 청아하게 진정시키는 설화수의 슬기는 아름다움의 초석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사람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믿어왔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외부 환경을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의 육기六氣로 규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바람, 찬 기운, 더위, 습기, 건조한 기운, 열을 일컫는 육기에 순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적응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비책도 지혜롭게 강구해왔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을 통해 피부를 보호했다는 기록은 고조선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를 보면 고조선 읍루 사람들이 겨울에 돋지기름인 돈지豚脂를 몸에 발라 추위와 동상을 방지하고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면약을 사용해 피부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송나라 사신 서궁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남아 있다. 고려시대 면약의 정확한 성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손과 얼굴을 부드럽고 희게 만드는 피부 보호제 겸 미백제로 오늘날 영양크림과 로션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면약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사대부가의 가정백과라 할 수 있는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면지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겨울철 얼굴이 갈라질 때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봉했다가 바르면 얼굴이 옥 같아진다."라고

Since ancient times, people across Asia believed that human beings are constantly interacting with their environment. According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r ancestors thought that the human body was subject to six specific environmental factors (i.e. "Yukgi [六氣]"), such as wind, cold, heat, moisture, dry, and fire. They believed that taking care of these six factors was the key to staying healthy. Based on this belief, our ancestors developed insightful means to benefit them by using wind, cold, heat, moisture, and heat, as well as protecting their skin in a healthy way. The earliest records of our ancestors using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ir skin originated from the Gojoseon era. According to the "Book of the Later Han", the people of Gojoseon put "Donji (豚脂)", a type of lard, on their skin during winter to keep their skin warm, as well as prevent frostbites and sunburns. Meanwhile, the "History and Social Life of Goryeo", which was written by an emissary from the Song Dynasty in China to Goryeo, describes how the people of Goryeo used "skin medicine" to protect their skin. The book defines this medicine as a type of skin protector and brightening agent that keeps a person's skin (hand, face) soft and bright with a texture between that of

상백크림 NO.1 크리미 글로우

자외선과 각종 유해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면서 피부에는 편안한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SPF50+ / PA++++의 높은 차단지수와 상백크림이 자외선으로부터 받은 피부 자극을 진정시켜주고 조미세먼지를 차단하며 피부를 환하게 밝힌다.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텍스처가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되고 촉촉한 보습감과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베이지 컬러 대리석 구, 크기가 다른 화이트 컬러의 대리석 구 3개가 층층이 쌓인 오브제. 대리석 원형 트레이 모두 르마블. 백자 도자기 합은 정자원 작가. 투명한 유리 문진과 향꽃이는 김동완 작가 by 제로룸152. *화이트 컬러 패인트벽은 'DEW380'으로 덴에드워드 논현점

자세히 나오는데 레시틴이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달걀의 효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가꿔온 노력과 지혜는 환경이 급변하고 유해 요인이 다양해지는 요즘 더욱 필요하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육기六氣와 더불어 자외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 일상 속 유해 요소가 가중되어 피부를 괴롭힌다.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한 요즘 설화수의 상백크림은 귀한 처방을 담아 막강한 방어력을 선보인다. 자외선과 유해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도록 '상백단™'이라는 원료를 새롭게 더한 것. 뽕나무에서 얻은 상백(뿌리)와 상심자(열매), 백삼, 매실 열매를 혼증한 오매, 황금을 조합해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을 관리하고 진정시킨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초미세먼지의 흡착을 방지하는 방어막을 적용하고, 피부를 밝히는 효과도 발휘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부드러운 크림 타입으로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크리미 글로우'와 가볍고 산뜻하면서 즉각적인 톤 업 효과가 있는 '밀키 톤 업'으로 구성되며 밀키 톤 업은 스마트폰과 PC 화면 등의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한다.

피부를 자극하고 색소 침착과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자외선과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의 유해 요소는 강력하게 막고, 피부는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상백크림으로 맑고 환한 봄날을 마음껏 누려보자. S

a nourishing cream and a lotion commonly used by people today.

Today, these skincare techniques and wisdom, which our ancestors have honed over centuries to keep skin protected and healthy,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as we face significant environmental change and a variety of harmful factors that work against our skin.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six environmental factors, harmful elements from our surroundings (e.g., ultraviolet rays, fine dust, ultrafine dust, and blue light) add to the assault that our skin has to endure on a daily basis. Sulwhasoo's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uses a rare and precious prescription to create a powerful protective layer over our skin. This is ideal for consumers who are searching for a safe protective barrier that is capable of keeping their skin clear and healthy. In particular, the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features Sulwhasoo's Plantia Protecting Complex™ to keep the skin protected from ultraviolet rays and other harmful irritants. Plantia Protecting Complex™ contains mulberry bark, mulberry fruit, white ginseng, smoked mume fruit, and Baikal skullcap that soothe the skin and help in repairing the damage caused by ultraviolet rays. Apart from blocking the ultraviolet rays, the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also prevents the skin from absorbing ultrafine dust and brightens the skin, thus making it much more dependable and reliable. The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is available in two versions - the "Creamy Glow" (a soft cream-type product that delivers a moist finish), and the "Milky Tone Up" (a light and refreshing product with immediate tone-up benefits and added protection against blue light emanating from smartphones and PC monitors).

The UV Wise Brightening Multi Protector, which can protect your skin from harmful environment and keep your skin soothe at the same time, will be the perfect choice for a beautiful day out in the clear and sunny spring season.

상백크림 NO.2 밀키 톤 업

상백단™이 자외선으로 받은 피부 자극을 진정하고 즉각적인 톤 업 효과를 선사하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SPF50+ / PA++++로 자외선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초미세먼지와 피부 밝기를 저하시키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한다. 가벼운 밀크 타입의 텍스처가 피부에 산뜻하게 밀착되고 끈적임 없이 보송보송하게 미무리되어 자성 피부나 무더운 날씨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0ml 6만원 50ml 8만5천원



비정형 형태의 기포가 있는 유리 문진은 양유완 작가. 납작한 형태의 투명·불투명한 유리 문진과 향꽃이는 김동완 작가 by 제로룸152.
긴 원통형 아크릴을 여러 개 연결한 형태의 'purity series' 아크릴 테이블 상판은 강지혜 작가.

매일 더 좋아지는 피부를 위한 첫 단계 안티에이징 “First Step” Anti-Aging Care for Better Skin Every Day

설화수에게 윤조에센스란 브랜드의 정신이자 제품력의 절정이다. ‘첫 단계 에센스’라는 분야를 개척해 23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윤조에센스. 2020년에 더욱 강력해진 성분과 효능으로 진화하여 5세대 윤조에센스로 거듭난다. 이러니 꿈꾸던 아름다움을 벅차오르게 누릴 수밖에.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997년, 윤조에센스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세안 후 첫 단계에서 바르는 에센스라는 개념이 생소했다. 대부분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 피부를 닦아내는 것으로 세안 후 스킨케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윤조에센스는 상식과 습관을 깨고 토너 대신 가장 먼저 사용해 다음에 바르는 제품의 흡수를 돋는 부스팅 에센스로 첫 선을 보였다. 피부의 균형을 맞추고, 피부 속부터 자연스러운 윤기가 배어나도록 만들며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는 역할을 했다. 생소한 한방부스팅에센스로 출시된 윤조에센스는 피부의 질을 눈에 띠게 달라지게 개선하며 이제 세안 후 처음 순이 가는 당연한 뷰티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성들의 습관까지 바꿔놓으며 출시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2014년에는 국내 뷰티 제품 가운데 최초로 단일 제품 판매 누적 매출액 1조원 달성을, 2020년에는 3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윤조에센스를 10병 이상 재구매한 고객이 40만 명 이상이라는 기록은 윤조에센스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기록이다.

설화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제품이자 베스트셀러인 윤조에센스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

In 1997, Sulwhasoo first launched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t was the first facial serum to hit the market designed for consumers to apply immediately after facial cleansing. At the time, most women were still beginning their skincare routines by cleansing their face, then wiping it down with cotton pads soaked in a toner-type product.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however, was a game-changer that went against all conventions and customs. It was the first “boosting serum” used ahead of everything else to help the skin absorb products used during subsequent skincare steps. This signature Serum of Sulwhasoo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women’s daily beauty regimen all over the world today.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now a bona fide best-sell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ultiple markets across the glob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the signature product and best-seller of the Sulwhasoo Brand. It has evolv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most recent iteration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an essential anti-aging essence that restores the balance in delicate skin, adds a naturally radiant glow to the skin, and takes care of skin aging factors to enhance skin’s natural capacity. The up-





NEW 윤조에센스

피부 안과 밖에서 노화를 케어하는 '유스마스터테크놀로지'로 완성된 강력한 5세대 지음액티베이터™가 잠재된 피부 속 능력을 끌어올리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노화의 흔적들을 자우고 피부 건강자수를 146파센트 개선해 건강하고 젊은 피부 비팅을 만들어 단 1병 사용으로도 매일 더 좋아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첫 단계 한방 애센스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안하며 23년 동안 전 세계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꾼 윤조에센스가 2020년 5세대로 진화한 것으로, 첫 단계부터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인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60ml 9만7천원대, 90ml 13만원대,
120ml 16만원대

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2009년 3세대, 2015년 4세대에 이어 5년 만에 5세대로 이어진 윤조에센스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것에 더해 피부 노화 요인까지 조화롭게 케어해 태고난 피부 능력을 깨우는 필수 안티에이징 애센스로 거듭난 것이다. 더욱 강력해진 자음액티베이터™로 진화한 핵심 원료부터 5세대 윤조에센스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높아진다. 동양 최고의 의서에 기재된 2만여 가지 허브 중 3,912 가지 치방, 1,041개 약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마이닝해 피부 노화를 막는 황금비율로 자음액티베이터™를 완성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치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는 최적의 황금비율 배합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진 유스마스터테크놀로지는 피부의 안과 밖에서 노화를 다스리는 5세대 윤조에센스의 핵심 기술이다. 설화수가 최초로 발견한 피부 자생을 지휘하는 핵심 인자 스킨마스터팩터와 최신의 바이오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를 담아낸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를 통해 잠재된 피부 능력을 깨우고 건강한 피부 바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설화수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여성 생애 주기에 대한 지혜에도 주목했다. 아시아 고서 속에 기록된, 여성이 7년 주기로 변화를 겪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설화수만의 지혜를 모았다. 설화수 한방 과학 연구센터를 통한 23년간의 연구

dated range of core ingredients featured in the more powerful JAUM Activator™ is also expected to help in providing more benefits and promoting user confidence in the efficacies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n order to perfect its JAUM Activator™ technology, Sulwhasoo used its database of more than 20,000 herbs, 3,912 prescriptions, and 1,041 medicinal ingredients listed in some of the top ancient sources in Oriental medicine, along with big data analysis and data mining techniques, for the optimum ratio of ingredients. Based on the data of ingredients capable of maximizing the anti-aging benefits, the fifth generation JAUM Activator™ is developed using this perfect prescription which contains the optimum combination of ingredients that can prevent premature skin aging.

Sulwhasoo has introduced the "Youth Master Technology", a core piece of technology featured in the fifth 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taking care of skin aging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skin. Through the "Skin Master Factor" which is the key skin factor first discovered by Sulwhasoo controlling skin resilience ability and the fifth generation "JAUM Activator™", which contains the result of the microbiome research, the potential "Skin Youth Energy" lying dormant inside skin awakes and creates a healthy skin foundation.

Over the course of its research, Sulwhasoo focused on the ancient teachings that refer to the "life cycle of women", which had been passed down in Oriental medicine for thousands of years. According to the ancient medicinal texts from Asia, scholars have theorized that women enter a new phase in their life cycle every seven years. Inspired by this theory, Sulwhasoo used its knowledge in

결과, 각 연령별 피부 고민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5세대 윤조에센스를 통해 제공한다. 피부를 환하게 밝히며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름, 탄력 케어와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각 생애 주기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한다.

피부 1.5밀리미터 아래에 작은 우주가 있고 여기에 깊음을 위한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설화수.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을 연구해 잠재된 피부 본연의 능력을 깨우는 5세대 윤조에센스를 탄생시켜 어느 연령이 사용하더라도 매일 더 좋아지는 피부로 가꿔준다. 수분량과 피부빛, 투명도와 윤기, 주름과 피부 장벽까지 모두 균형 있게 관리해 피부 건강 지수를 146퍼센트 개선한다는 임상 테스트의 남다른 성과는 설화수만이 선사하는 놀라운 경험이다. 여성의 생애 주기와 식물 성분에 대해 완벽한 이해, 전통과 첨단 과학을 넘나드는 5세대 윤조에센스는 첫 단계부터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다시금 새로운 뷰티 루틴을 정의하는 영광스러운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섰다. S

finding a solution that could help women maintain their health, radiance, and beauty regardless of their age. Leveraging 23 years of research at its Sulwhasoo Heritage and Science Center, Sulwhasoo decided to offer a solution capable of solving a comprehensive range of skin concerns for different age groups with its fifth 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The new Serum not only brightens the skin with a natural glow, but also lifts wrinkles, improves resilience, and moisturizes the skin to provide personalized care tailored to each specific stage of the female life cycle.

Leveraging Sulwhasoo's research into fundamental anti-aging technology to harness the energy lying beneath everyone's skin, the fifth 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stimulates the skin's natural power and ability to promote skin that looks and feels better every day regardless of age. In addition, the remarkable benefits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have already been proven with extensive clinical testing.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mproves the "Skin Youth Index" by 146% by taking care of the skin's hydration, brightness, translucency, radiance, wrinkles, and skin barrier. With this fifth 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Sulwhasoo anticipates leading a brand new trend in the beauty regimen of numerous consumers worldwide once again, as previous 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was in the past.



윤조에센스
사용법
How to us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Step 1

양손을 비벼 따뜻한 온기를 만든 후 윤조에센스를 양 손바닥에 펴 바른다.
Rub hands together and sprea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over palms.

Step 2

양 손바닥을 모아 향을 맡으며 호흡을 차분하게 정돈시킨다.
Gather both palms and inhale the fragrance to experience its relaxing effect.

Step 3

볼, 이마, 눈기순으로 꼭꼭 눌러 내용물을 흡수시켜준다.
Press over the cheeks, forehead, and eye area for absorption.





유연함을 다듬은 견고함

ROH IL HOON

노 일 훈 건축가 · 디자이너

자연에 없던 물질로 자연의 신비함을 담아내 온 디자이너 노일훈. 그는 가구를 디자인하는 자신의 작업을 '건축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게 실絲의 일종인 탄소섬유로 강철보다 강한 벤치와 테이블을 만들었던 그는 요즘 자전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뭘 만들지는 그만이 알 것이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 김정한, 이종근

먼저 풍피두 컬렉션에 선정된 '라미 벤치(Rami Bench, 2013)'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부터 자연의 형상이 어떤 규칙에 의해 생겨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가우디나 프라이 오토 같은 건축가 혹은 수많은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던 도중에 '라미 벤치 시리즈'가 만들어진 것인데, '라미'란 뜻은 나뭇가지가 갈라지며 뻗어 나간다는 의미죠. 이 시리즈는 아무렇게나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가 실은 지극히 효율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된 형상임을 제가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의 복잡한 설계도를 이해한 뒤에 작품에 적용하려면 치밀한 계산이 필요 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라미 벤치를 보면서, 3D 프린팅 기법을 사용 했다거나 철사로 나뭇가지의 형상을 조형적으로 모방했다고 오해하시죠. 저의 작업은 쉽게 말해, 한 가닥의 탄소섬유가 다른 가닥과 만나 굳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묘한 각도 변화 등을 계산하는 복잡성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적 모방이 아닌 연구와 해석을 통한 건축의 영역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이로운 과학의 세계가 자연이나 인체 내에서는 누구의 조작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발견한 이런 경이로움을 관객들도 공유하길 원해서입니다.

Please tell us about your "Rami Bench" series (2013), which has been selected by Pompidou Collection. I was curious about the rules that had created natural phenomena even before I started the design process, just as the architects Gaudi and Frei Otto and all those mathematicians and physicians were. I created the Rami Bench series while I was studying and testing an enormous amount of resources, and Rami means "the forking of branches." The series conveys my process of realizing realization of the fact that the branches that seem to grow without being governed by any law are actually following extremely efficient laws of physics.

It would have required a great deal of precise calculations to apply the complicated designs of nature. Many people misunderstand that Rami Bench was created using 3D printing or by figuratively imitating some branches with wires. Simply put, my work is a continuation of the complexities behind the calculation of the subtle change of the angle that occurs when a strand of carbon fiber meets with another strand and takes on a certain form. It does not imitate the shape, but it is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involving research and analysis. What is amazing is that this marvelous world of science takes place naturally without any manipulation in nature and in the human body.



표지작은 어떤 작품인가요? 광섬유와 탄소섬유를 활용한 '파라볼라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곡선은 중력에 의해 곡률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광섬유를 수공으로 꺾고 비즈를 끼어 빛을 뿜어내는 자연의 포물선을 늘어뜨리는 한편, 탄소섬유 가닥을 꼬아 아치 형태를 제작해 아래 위로 대칭을 이루게 한 작품입니다. 즉 포물선과 아치의 조합으로 자연의 풍경을 재해석한 건축물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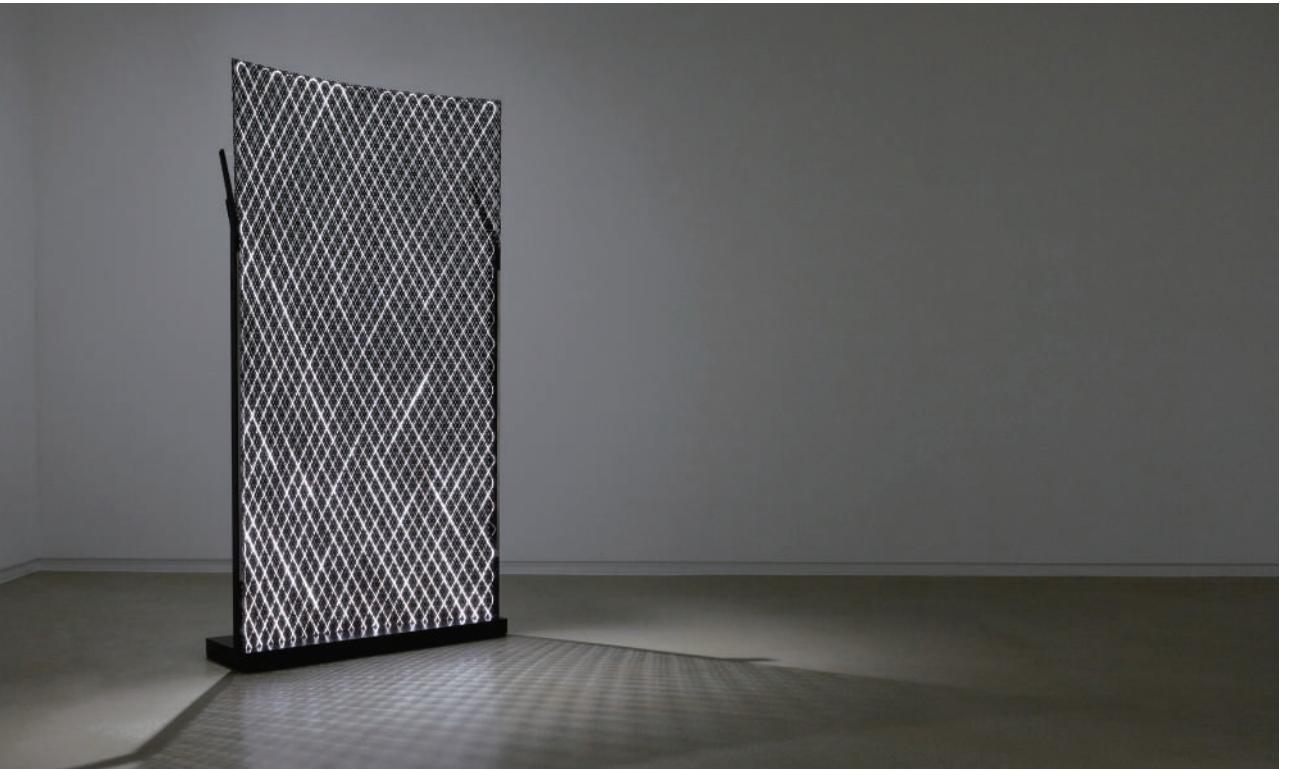
수공으로 '꺾고' '꼰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최첨단 소재를 활용하면서 굳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차용한 이유가 있는지요? 많은 시도 끝에 선택한 탄소섬유란 소재는 처음엔 부들부들했다가 일정 온도에 노출되면 열 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도가 높아져 변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탄소섬유를 다룰 가장 효율적인 기법을 찾고 있던 중에 종이로 꼰 을 꼬아 그릇을 만드는 지승공에 등의 기법에 주목하게 된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종이지만 당시엔 종이가 최첨단 소재였잖아요. 저보다 먼저 고민했을 분들의 지혜를 빌린 거죠. 그분들이 종이를 꼬아 옷칠을 했던 것처럼 저는 탄소섬유를 에폭시 레진으로 딱딱하게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저만의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국 유수의 건축대학을 졸업하고, 저명한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디자이너가 되셨나요? 원래 건축이란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

What is this piece on the cover? It is from my Parabola series made of optical and carbon fibers. The curvature of the curves found in nature is determined by gravity, so I manually bent the optical fibers and inserted beads into them to drape the natural parabolas that diffuse light, and I twisted the strands of carbon fiber to form horizontally symmetrical arches.

You said you "bent" and "twisted" manually. Is there a reason for your adoption of the techniques of traditional handicraft when you're working with the latest high-tech materials? I chose carbon fiber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It is soft at first, but it's fixed into a certain shape through thermal hardening when it's exposed to a certain temperature. While looking for the most efficient way to handle carbon fiber, I found out that paper was twisted to make strands to weave vessels. Paper is an ordinary material today, but it was one of the latest discoveries back then. I borrowed the wisdom from those who contemplated before I did. They twisted paper and lacquered it, and I came up with my own way of hardening carbon fiber with epoxy resin through countless trials and errors.

What motivated you to become a designer after majoring in



부들부들한 탄소 섬유를 다룰 가장 효율적인 기법을 찾던 중 종이끈을 꼬아 그릇을 만드는 지승공에 등의 기법에 주목했다.
거기에 옷칠을 한 것처럼 탄소섬유를 에폭시와 레진으로 딱딱하게 만드는 기법을 찾아냈다.



자연에서 형태를 발견하고 공학적 계산과 3D 프린팅,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독창적이면서 아름다운 가구를 완성한다. 더불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적용해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적 미감을 더한다.

고 방대한 분야인데, 요즘 건축은 너무 세분화돼서 건축에 대한 제 애정을 건물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애당초 조각이나 가구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저의 관심사와 궁금증이 라미 벤치라는 아트퍼니처에 반영됐고, 실험이 계속 이어져 지금은 13번째 실험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든 실험과 도전이 대상을 달리한 건축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형태상 모든 작품들이 자연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은 어떻게 포착하십니까? 라미 시리즈 이후를 고민하던 중 몇 년 전 겨울, 방문했던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곧 선보일 작품은 몇 가지 점에서 지금까지의 작업들과 구별될 겁니다. 그동안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색감,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등이 적용될 것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프랑스의 무형문화재 태피스트리(tapestry) 기법도 차용할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염색사로 색을 채워가는 이 기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서 살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저희 스튜디오가 제작한 자전거도 동시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작품으로서의 자전거인가요? 아니면 제품으로 론칭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우선 발상의 빌단은 자연이 주체가 되어 자전거를 만들었다면 어떤 형태일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오브제들은 다 그런 방식의 질문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전거 제작에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실험들에서 얻은 결과치와 기술, 기법들이 적용될 겁니다. 그동안 제 작업들이 미술관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동수단인 자전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특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저의 작업이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상상하고 작업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이자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돼온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명체도 그렇고 번개나 강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원칙이 지구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의 관심사는 그런 물리법칙을 추적하는 것이고, 다종의 결과물을 통해 저의 의문점을 탐구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고 싶습니다. S

Architecture at a noted school in England and working for a renowned architectural firm? Actually, architecture is a very inclusive and extensive field, and the field of architecture today has been divided into so many sectors. I thought I don't necessarily have to express my love for architecture through buildings, but it was not my initial plan to become a sculptor or a furniture designer. I just followed my interests and curiosity, and reflected them on Rami Bench. My experiments have continued, and I'm now working on my 13th one.

All of your creations resemble certain natural shapes. How do you capture the marvels of nature? I was doing some brainstorming after the Rami series and found out my answer in a birch forest in Gangwon-do that I visited in winter a few years ago. I'm planning to apply colors and change of light over time, which I've never attempted before, and to borrow the techniques of tapestry, the intangible heritage of France registered under UNESCO. I spent some time in France to learn how to fill in colors with colorful dyed yarns. The upcoming exhibition will also display the bicycle that my studio has created.

Is the bicycle an artwork or are you planning to launch it as a product? My idea came from the question as to how nature would have built a bicycle, not what it would look like. All the objects I've created have been inspired by similar questions and the bicycle will be built with all the findings, technologies, and techniques I've acquired from all my previous experiments. I regret that my creations have been shared with a limited number of people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nd only in some art galleries. I hope to be able to present my work in random places through the medium of bicycle, which is a mode of transportation.

I feel that you imagine and work with a very unique approach. I believe that's the way I send my messages and reveal my identity. Everything tha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follows the fundamental laws of physics. This is true for all living organisms and even for thunder and rivers. The laws do not apply only to Earth either. It's my job to track the laws of physics. I'm exploring my curiosities through a number of outcomes and I want to continue doing so.

서촌에서 살아보는 여행 Seochon Hanok 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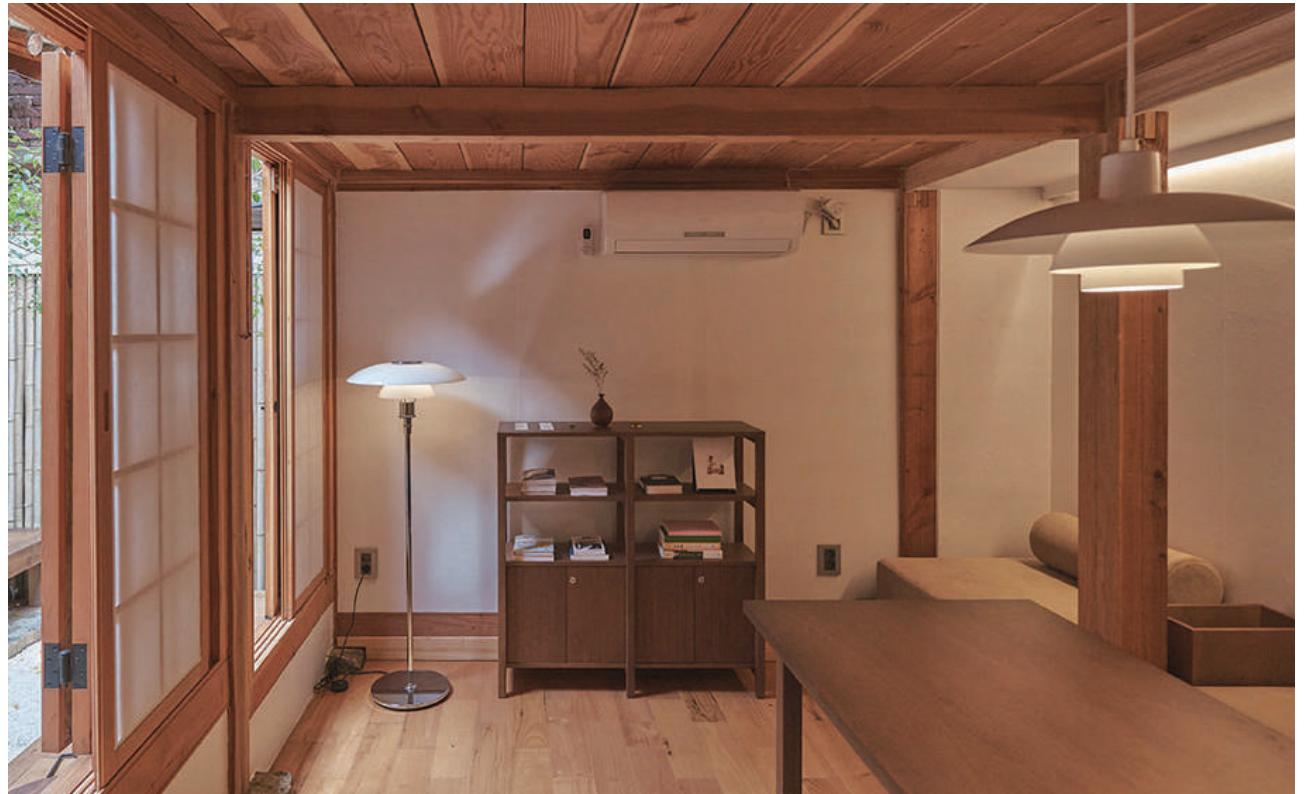
스 테 이 폴 리 오 서 촌 한 옥 스 테 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 건물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 여길 때가 있었다. 때때로 흔희를 느끼나 주로 마음만 바빴던 시절.

이제는 그저 다른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 역시 여행이라 생각한다. 오직 숨을 가다듬기 위해 떠나기도 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텍스처 온 텍스처, 박기훈





작지만 다채로운 공간으로 가득한 서촌 일독일박. 세상과 떨어져 책을 읽으며, 온전히 자유로운 하루를 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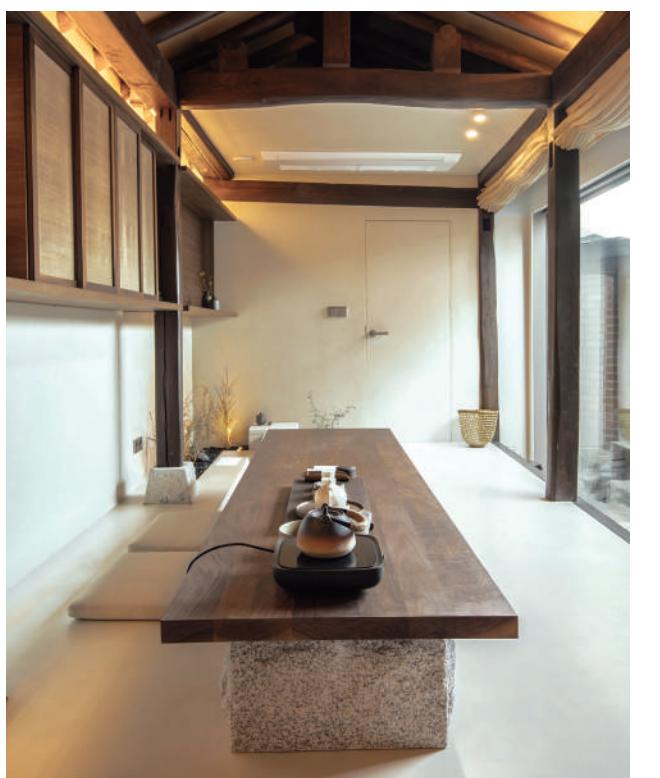
스테이폴리오는 서촌의 특성에 숙박을 연결시켜, 가장 독특한 형태의 호텔을 만들었다. 이른바 '수평적 호텔'이다. 우선 스테이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터이다. 스테이폴리오는 '머무는 것 자체로 여행이 되는 공간을 만들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건축사 사무소 '지랩'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서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호텔이 수직적인 건물이 아닌, 수평적 마을에 펼쳐 있다면?'이란 가정에서 시작한 이 모험은 서촌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만들었다. 이른바 '서촌유희' 프로젝트다. 객실과 컨시어지, 식당, 카페 등 호텔의 각 요소들이 서촌 곳곳에 흩어져 있다. 호텔에 체크인하기 위해서는 컨시어지 역할을 하는 '한권의 서점'에 들러야 한다. 이곳은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판매하는 콘셉트의 서점으로, 맛집이나 명소 등 서촌에 머무는 동안 경험 할 만한 여러 가지를 큐레이션해 제공해준다. 내국인은 원치 않으면 바로 스테이로 입실해도 되지만 외국인에게 꼭 거쳐야 할 과정으로 수평적 호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서촌유희'의 객실은 서촌의 한옥 다섯 곳을 새로 고쳐 마련했다. '누와'와 '일독일박', '아담한옥', '서촌영락재', '썸웨어' 등 그 이름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중에 누와, 영락재, 일독일박을 직접 가보았다.

서촌 누하동의 어느 좁고 긴 골목을 걸어 들어가면 문득 '누와'라는 문패를 단 집에 도착한다.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면 한참을 헤맬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있는 아담한 한옥이다. 'ㄱ'자 구조의 누와의 공간은 물과 나무, 차(다도)로 이루어져 있다. 약트만한 침대 끝에는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둥그런 창이 나 있다. 편안히 누워 그 둥그런 창으로 보이는 담벼락과 그 너머 이웃의 자봉, 그 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절로 상상된다. 다기가 마련된 테이블에서 차의 향을 음미하고 따뜻한 물

서촌의 수평적 호텔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경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전한다. 그래서 여행이
단순히 공간을 횡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Stayfolio has created the most unique form of hotel by relating the characteristics of Seochon to the idea of accommodations. It is a so-called "horizontal hotel."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ain what Stayfolio is. Stayfolio is a platform for finding a place to stay with the vision of "Creating a space where staying becomes a trip in itself." It is run by Z-Lab, an architectural firm. Z-Lab did an interesting experiment in Seochon. Asking the question "What if a hotel is not encased in a vertical building but spread horizontally throughout the town?", the experiment turned the entire Seochon into a single hotel. This is known as the "Seochon Yuhee" project. The elements of the hotel — the guestrooms, concierge, restaurants, and cafés — are scattered throughout Seochon. To check in, you should stop by "The Bookstore of One Book," which serves as a concierge. This bookstore chooses and sells just one book a month and recommends what you can experience while staying in Seochon, including good restaurants and landmarks. Local guests may enter the "Stay" right away, but foreign guests must go through this proces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orizontal hotel. The guestrooms of "Seochon Yuhee" were created by renovating five Korean houses in Seochon. They are called "Nuwa," "Ildogilbak," "Adamhanok," "Seochon Youngrakjae," and "Somewhere," names that bring to mind many heartwarming stories. I visited Nuwa, Youngrakjae, and Ildogilbak. Walk into a long, narrow alleyway in Nuha-dong, Seochon and you will come across a house with the sign "Nuwa." If it's your first time there, you would probably have a hard time finding it because it's a snug little house at a dead end. The L-shaped layout of Nuwa consists of water,



서촌영락재의 누마루(위). 가장 한옥적이면서 현대인에게 편리한 공간을 마련했다. 고요하게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누와의 다실 공간(아래).

에 발을 담그고 사색하는 풍류. 둘이어도, 혼자라도 충만한 경험을 누와는 선사한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집’이란 뜻의 ‘영락재’는 대목장 장인의 손길로 다듬어진 한옥으로 전통 양식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적절히 조합했다. 1층의 한옥 구조엔 누와 마루와 두 개의 침실, 작은 키친과 건식 화장실이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계단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인 지하 아지트엔 천장을 통과한 따스한 빛이 오롯이 들어오는 아늑한 침실과 키친,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아담한 마당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한껏 누리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일독일박’은 이름처럼 독서를 위한 숙소다. 독서가 최적의 휴식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일 것이다. 복잡한 속세의 고민을 훌훌 털고 문장들과 그 행간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일독일박에서 가능하다. 대문을 들어서면 아담한 중정을 중심으로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다. 중정의 왼편은 침실이, 오른편엔 여럿이 모여 이야기나 식사를 나눌 수 있는ダイニング이 있다.ダイニング에서 나와 원목 사다리를 올라가면 낮은 층고의 다락이 나온다. 각 공간에서는 ‘한권의 서점’이 엄선한 책들을 만나게 된다. 종일 책을 읽다가 다락에 숨어들어 홀로 생각을 정리하는 멋진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

바쁘고 숨찬 여행이 지겨워진 이라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던져버리고픈 누구나, 서촌유회는 반가운 일탈이자 뜻깊은 머무름이 될 것이다. 잠시나마 서촌의 주민이 되어 살아보는 경험, 생각보다 훨씬 따스하고 부드럽다. S

trees, and tea. By the low bed is a round window that you can look out to the yard. You can easily imagine yourself lying down comfortably to watch the walls, the neighbors' roofs, and the blue sky through the round window, with smelling the scent of a cup of tea on the table and meditation with your feet in the tub of warm water. Nuwa presents you with an experience that is quite fulfilling either with someone else or all by yourself.

Youngrakjae, meaning “a house for eternal pleasure,” is a Korean house refined by the touch of a master combining the traditional style with the contemporary lifestyle. The single-story house has an open living room, two bedrooms, a small kitchen, and a dry bathroom. There's nothing more that you'll need. Moreover, the secret hideout in the basement has a cozy bedroom, a kitchen, a shower, and a bathroom lit by the warm light through the ceiling. The humble yard is perfect for enjoying the sentiments inspired by a quiet Korea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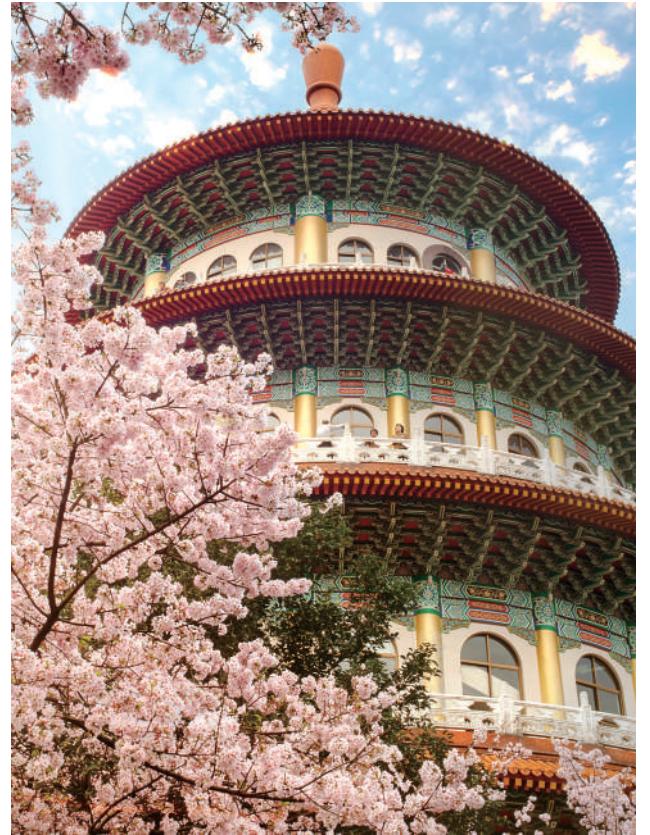
Finally, Ildogilbak is a place for book lovers. It's the best getaway for those who choose to read to relax. Ildogilbak allows you to forget about the mundane worries and contemplate the meanings of sentences and what's hidden between the lines. As you enter the gate, you will witness the spaces surrounding a humble courtyard. To the left of the courtyard is the bedroom, and to the right is the dining place, where you can gather with others to have a conversation or a meal. You can then leave the dining place and climb up a wooden ladder to an attic with a low ceiling. Each space has books carefully selected by “The Bookstore of One Book.” You can plan for a great day where you read books all day and hide in the attic to organize your thoughts.

드높은 심연의 명작 Masterpieces of History

최상의 제품으로 대만의 여심을 사로잡은 설화수가 새로운 진설명작 라인으로 빛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진구한 성분과 찬란한 효능을 소개한 타이베이의 현장은 황홀한 금빛의 천사로 가득 찼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셔터스톡





역사의 보물을 아끼는 무한한 관심

자칫 낚아 보이는 건물들마다 빛나는 보석을 품고 있는 도시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시 간을 품은 공간을 없애거나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색다르게 털바꿈하고 있다. 1917년에 지어져 오랜 시간 버려진 대규모 양조장은 예술촌으로 거듭나고, 1930년대에 지어진 텅빈 담배 공장은 미술관으로 채워졌다. 타이베이 최고의 마천루이자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옆에 위치한 2층 높이의 군 관사 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편집숍, 카페, 전시관 등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정비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옛 정취가 어우러진 특별한 매력이 타이베이 곳곳을 채워 보물찾기 같은 재미를 선사한다.

대만 역사와 정치적 의미를 기리는 중정기념관과 바로 옆 국립희극원, 오페라극장은 웅장하고 우아한 중국 궁전 양식의 건축물로 빼놓을 수 없는 타이베이의 명소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말 그대로 진귀한 보물이 가득하다. 5000년 중국 역사와 예술을 총망라한 75만여 점의 소장품은 작은 나라 대만의 박물관을 세계 4대 박물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타이베이 근교에는 대만의 역사적 정취와 풍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주편, 단수이 등의 마을이 있다. 시간의 선물을 보물로 빛어낸 대만 특유의 정서가 옛것에서 명품을 찾아내는 설화수의 지혜와 닮아 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는 진귀한 유물과 예술품, 대만인들이 사랑하는 옛 정취의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명작과 명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아끼는 대만인들의 남다른 안목과 취향이 타이베이를 특별한 매력으로 가득 채운다.

Relentless interest in treasures from the past

As you walk along the streets of Taipei, you will discover hidden gems in some of the oldest-looking buildings in the city. The Taiwan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remodel Taipei, the capital city of Taiwan, in order to give it an entirely new look without replacing old buildings with new structures in its historical districts. Under this city-wide remodeling initiative, a large abandoned brewery, which was originally built in 1917, has become an art district, while a vacant tobacco factory that was built in the 1930s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Other must-see attractions include the National Chiang Kai-shek Memorial Hall, which commemorates Taiwan's history and political significance, as well as the National Theater and Concert Hall right next to the Memorial Hall, both of which boast grand and opulent buildings that resemble traditional Chinese royal palaces. Numerous suburbs, including Jiufen and Danshui, are surrounding Taipei and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to the more traditional side of Taiwan. Most importantly, the manner in which Taiwan transforms gifts from the old times into treasure has a similarity with Sulwhasoo's wisdom to transform tradition and heritage into modern master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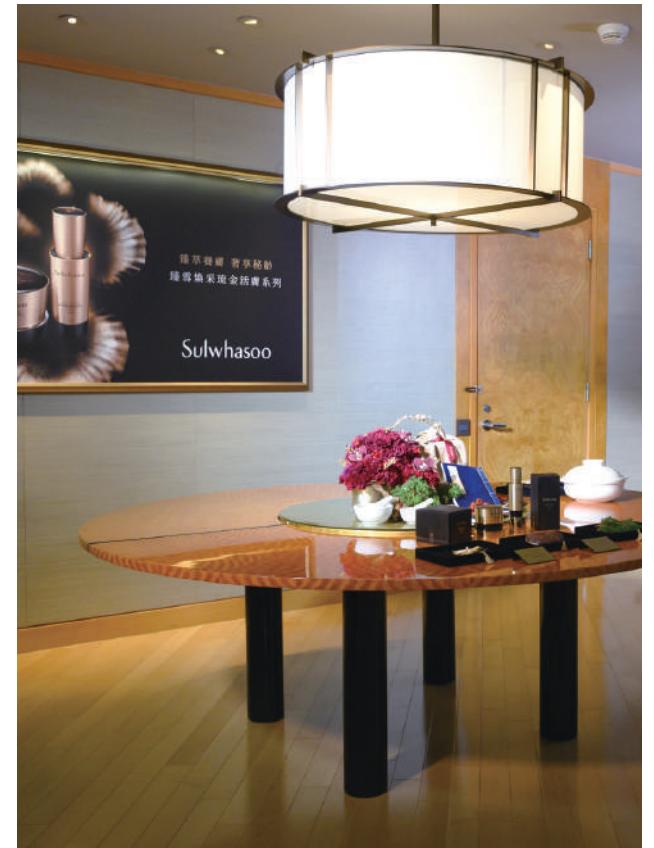
황홀하게 빛나는 설화수의 명작

아시아의 지혜로 아름다움의 문을 여는 설화수가 심혈을 기울인 진설명작크림과 진설명작에센스는 지난 1월 출시를 맞아 대만 타이베이에서 론칭 기념 미디어 이벤트를 열었다. 진귀한 예술과 전취적 문화를 간직한 타이베이에서 펼쳐진 고귀한 진설명작 라인의 첫 시작은 대만을 대표하는 57개의 주요 매체와 매거진이 참여하고 뷰티 전문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의학 의사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설명작 라인에 담긴 진귀한 3가지 성분인 영지, 인삼, 금강적송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해 진설명작 라인의 경이로운 생명력에 대한 신뢰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진설명작에센스의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섬세한 최고급 텍스처와 순간적인 빠른 흡수력에 놀랐다.', '진설명작크림의 경우 '혁셔리 크림의 도톰한 제형임에도 바르는 순간 끈적이지 않고, 가벼운 발림성에 감탄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부드럽고 윤이 나며, 마치 고급 스파를 받는 듯하다.', 또한 '편안한 대지의 향으로 심신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온·오프라인 신문, 매거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설명작 라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진정한 명품을 귀하게 여기는 심미안을 지닌 대만 고객들과 설화수가 함께 쌓아가는 아름다움의 여정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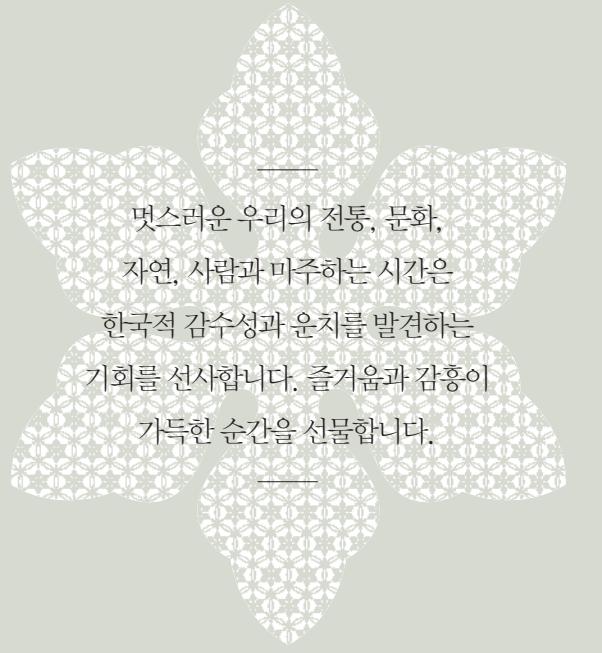
타이베이 내 설화수 입점 매장

- 타이베이 신광 미초코시 티엔무
Taipei Shin Kong Mitsukoshi Tienmu Store
- 타이베이 신광 미초코시 난지
Taipei Shin Kong Mitsukoshi Nanxi Store
- 타이베이 퍼시픽 소고 백화점
Taipei Pacific SOGO Whongxiao Store
- 타이베이 통일시대 광장
Taipei Uni-Style Taipei Store
- 타이베이 신광 미초코시 A8
Taipei Shin Kong Mitsukoshi Taipei Xinyi Place A8
- 타이베이 메가시티
Taipei Mega City



Glowing masterpiece from Sulwhasoo

Sulwhasoo, Korea's leading luxury beauty brand that aspires to combine beauty and Asian wisdom, hosted a media event in Taipei, Taiwan to mark the launch of its long-awaited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and Timetreasure Honorstige Serum in January. Fifty-seven of Taiwan's leading media outlets and magazines, along with various opinion leaders in the beauty industry, participated in the event in order to see the luxurious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for the very first time in Taipei. Moreover, Sulwhasoo invited top Chinese medicine experts and doctors to provide more insight into the three rare and precious ingredients featured in the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to boost the credibility of the remarkable vitality delivered by Timetreasure Honorstige products. The guests at the event were particularly surprised by Timetreasure Honorstige Serum's soft, delicate, and silk-like texture, as well as fast-absorbing formula. With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is latest media event, Sulwhasoo is looking forward to embarking on a journey in search of ultimate beauty with its customers in Taiwan, who showed their sophisticated taste and acumen in acknowledging truly rare and precious products through the remodeling of their c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they are placing on their cultural heritag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누리다



폼 잡지 않아 폼 나는 사람 Unpretentious, therefore Stylish

김 소 연 에 스 텁 대 표

김소연 대표에게 중요한 단어는 이런 것들이다. 사람, 지금, 오늘, 즐거움, 재미, 도전, 시작, 호기심, 믿음, 균형.

비장하거나 거창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제일 좋다.

근엄한 얼굴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목표는 스스로 바짓단을 수선하는 거예요.”

모델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로 시작해 국내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스팀의 수장인 그녀의 계획.

인터뷰 끝에 나온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이 한 문장 안에 김소연 대표의 면면이 숨어 있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감수성과 가능성의 만날 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아티스트가 포진해 있는 에스팀. 얼마 전 그룹 JxR의 데뷔로 아이돌 무대까지 섭렵하며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아티스트와 직원들이 원하면 시작해요. 경계를 넘어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면 혹은 아니더라도 노력합니다. 당장의 감수성이 언젠가 트렌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허무맹랑한 제안들은 설득하죠.” 경계를 허물고 한계 없이 나아가고 싶다는 김소연 대표. 그러기 위해 지나온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고 집착도 없다. “요즘 젊은 감각이나 취향을 맞춰나가긴 힘들어요. 나이를 인정해야죠. 다행인 건 뒤에서 제가 갖지 못한 걸 지니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고 맡겨야죠.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다 쥐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협업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다. 함께 일구고 다같이 성장하고 싶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100퍼센트 믿어요. 믿으려고 하고 믿어야만 하죠. 열 명 중 한 명 정도 등을 질 수도 있겠지만 소수를 위해 다수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 배신과 거짓에 속상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경영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안팎으로 단단해졌다.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간다.

When emotion meets potential

The Esteem Group features a collection of talented artists from a wide variety of fields. Esteem also continues to expand as evidenced by the successful debut of its latest project, K-pop idol group “JxR” (JxR debuted successfully late last year). “We get the ball rolling if our artists and staff want to try something out. It’s our attempt to transcend existing boundaries. If we see potential, we go for it. In some cases, we get things started even if we don’t see potential because we believe the emotions we feel today can become a bona fide trend one day. Of course, some of the more outlandish proposals have to be backed up by convincing arguments.” Kim So Yeon, CEO of Esteem Group, says she wants to move forward in a way that is unbridled by boundaries or limitations. That is why she never regrets the past. Longing for and obsessing over bygone days are foreign concepts to Kim. “It’s difficult for me to keep up with the taste and preference of younger people these days. It’s a product of my age, and I accept that. Fortunately, for me, I have younger colleagues who come to me with insight into certain aspects I don’t have a good handle on. I have to trust that they’ll do a great job. I know full well that we won’t be able to grow if I keep an iron grip on everything as if I know absolutely everything.” True to her word, Kim runs her company in a collaborative way, where her staff works on things they are best suited for. Kim says she wants to work on things together and grow together with her staff.





중요한 건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

즐거운 하루하루를 위해 그녀는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계획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올해 적자는 내지 말자 같은 단기계획 정도만 생각해요. 뭘 이루겠다는 거대한 목표는 내 몸보다 큰 짐볼 같아서 시야를 가리죠. 잘 굴려 전진하는 것 같지만 앞이 안 보이니 길을 잊을 수도 있고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지금은 맞아도 사흘 후에 보면 아닌 일이 많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물살을 따라가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 굳이 세워야 한다면 최고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욕심이고 상태를 악화시키기 쉽다. 때문에 그녀가 집중하는 지점은 매사에 물음표를 갖는 것이다.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고 싶다. “모델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겠어’, 혹은 ‘세계적인 모델을 양성하겠어’ 이런 목표는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SNS가 활성화되고 인플루언서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모델은 저물어가는 직종 중 하나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자는 거예요. 시작은 모델이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뭔지 계속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선택하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즐거울 일은 충분하다.

머물지 않고 나아간다

“사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직원들의 삶의 질이에요.” 삶에 물음표를 갖고 답을 찾아 기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고 비전이라는

Question marks over periods and full stops

To make sure she enjoys each and every day, Kim does not make long-term plans. The last place she wants to be is in a position where she is tied down by some plan she made a long time ago. “In terms of plans, I keep things short-term. For example, I tell myself to keep the company balance in the black this year. Setting a massive goal, or setting out to do some specific thing feels like putting a giant gym ball in front of me. It blocks my view ahead. Even if I get the gym ball rolling, I can’t see what’s in front of me. That can get me lost. In today’s world, where everything changes so quickly, something that felt right today, may be completely wrong in just three days.” Kim believes grabbing things by the collar and trying to force the impossible is a greedy thing to do. She understands that forcing things can easily make things worse. Instead, she tries to focus on posing questions against everything. Kim wants to move forward by constantly questioning and pondering things. It’s important to constantly ask yourself what you enjoy the most at any given point in time, then decide on a thing you can really work hard for.” To Kim, so long as you get rid of the fear of traveling down the road unknown, taking a chance on new things can be full of delightful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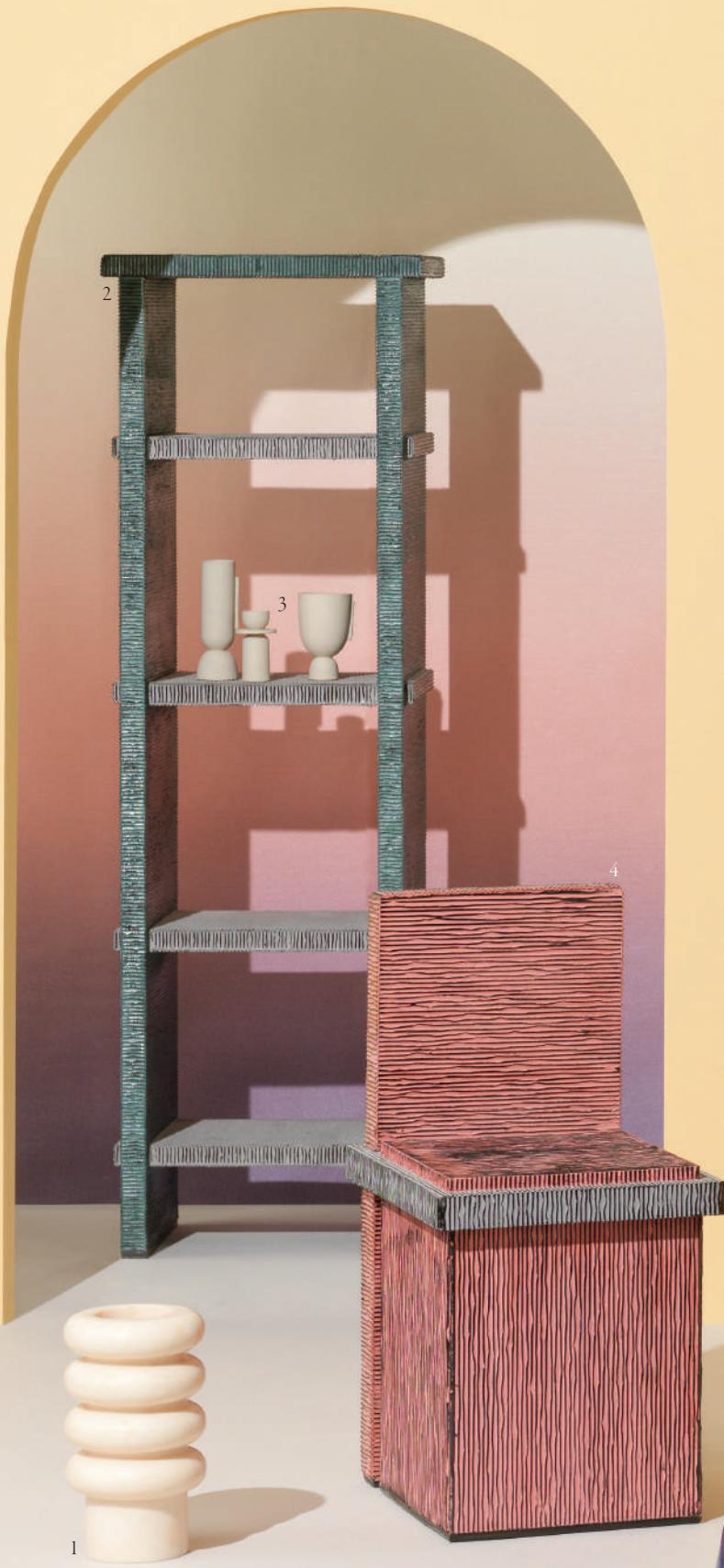
생각이다. “거대 목표는 없지만 회사라면 적어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미래가 보장되어야죠.” 에스팀은 부서별 분리가 정확하다. 명확하게 나뉘어 자신이 할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독립시키고 싶다. “에스팀은 쉽게 말해 스타트업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구조예요. 어느 지점이 되면 자회사로 독립하도록 해요. 디렉터 체제로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죠. 팀 안에서도 직급별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프로젝트를 맡아 끝까지 해내는 게 업무예요. 연차, 호봉도 없앴어요. 자신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죠.” 상명하달식이 아닌 수평적 구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동적 형태. 사업을 시작하고 첫 10여 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차근차근 만들어놓은 시스템 덕에 에스팀은 기울어짐 없이 균형 있게 나아가고 있다.

하루하루의 미래. 멀리 떨어져 잡을 수 없는 게 아닌 바로 내일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가까운 사람, 가까운 행복, 가까운 시도, 가까운 실천, 가까운 도전. 곁에 있는 것 안에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진 김소연 대표는 요즘 미싱을 배운다. 내 옷은 내 손으로 수선해보겠다는 작은 목표가 나중에 어떤 큰 행복이 될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에스팀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 봄 바람처럼 상쾌하고 인상적인 사람. 무겁지 않고 편안히, 그러나 신중하게 할 일을 다 하는 태도가 근사한 사람. 김소연 대표와 동명이인 김소연 시인은 〈한 글자 사전〉에서 ‘품’을 이렇게 정의했다. ‘품을 잡는 사람한테서는 품이 안 나고 품이 나는 사람은 품을 안 잡는다.’ 김소연 대표는 품 나는 사람이었다. 품 잡지 않아 더더욱. S

Never stationary, always moving

“The thing that I’m worried about the most is that the leader of a company is the quality of life my staff gets to enjoy.” Kim believes that people can grow and have a vision by becoming the true owners of their lives through the process of asking questions and finding answers to seek out opportunities. It is no surprise, then, to find that Esteem Group has clearly defined departments with specific roles. Everyone has clear responsibilities, which they carry out with dedication. Kim wants to develop her staff into independent entrepreneurs. It took more than a decade and countless trials and errors for Kim to build her employment system. This system, however, is what keeps Esteem stay on level ground at all times. Kim has the insight to see the future from the present and things that are already around her. Perhaps that is why she is learning how to use a sewing machine lately. She thinks that the seeming small goal of being able to fix or alter her own clothes might give her great joy down the road. And as she sews away, Kim thinks what Esteem can do next. A refreshing and striking person, just like the spring breeze. A comfortable person and a considerate person, rather than a solemn and serious person, who does her duties the best she can with grace and dignity. Kim’s namesake, the renowned poet Kim So-yeon defined “style” in her book “The Single Letter Dictionary” as follows: “A pretentious person is never stylish, and a stylish person is never pretentious.” Kim definitely has style. And her unpretentious nature is what makes her style stand out even more.





1 기하학 형태의 베이지 컬러 대리석 화병은
르마블. 2, 4 골판지와 시멘트를 이용해
홀리스와 일반인의 차이를 설명한 'Criteira'
선반과 의자 작업은 전치호 작가. 3 '장승
시리즈' 도자기 작업은 모두 504~18. 5 기하학
스탠딩 모빌은 볼타 by 룰파멘트. 6 소망을
담아 쌓아 올린 막돌탑에서 영감을 받아 철에
옻칠 작업한 아트퍼니처 'Merge Series'는
김옥 작가. 7 솔리드 오크 프레임에 가죽
커버를 입힌 의자는 HAY by 이노메싸.
8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질감을 표현한
도자기 오브제는 김민선 작가. 9 상판에
일정한 깊이와 간격으로 홈을 파서 장식한
'지그재그 소반'은 한동엽 작가. 10 기하학
형태의 블랙 컬러 대리석 화병은 르마블.
*살구색 페인트벽 컬러는 'DE5234'로
던드워드 논현점



담백하고 대담한 마음의 그림

조선시대 목가구의 간결한 선, 단아한 면의 예술인 조각보, 한옥 처마선의 유연함과 창호 문살의 비례미 등 점, 선, 면의 조형 언어는 오래전부터 삶에 녹아 있었다. 우리의 산과 강, 나무와 풀을 닮아 순수하고 부드러운 생명력을 품어 무위한 공간.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조용한 여운의 미

뒤로 적당히 물러서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여백이 그리는 공간미 덕분이다.
적당히 비워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체를 살피는 마음이 그려낸 비움의 미학이 오히려 충만한 편안함을 선사한다.



왼쪽 페이지 1 연한 노란색 유리 화병은 김동완 작가 by 제로룸152. **2** 하늘색 작은 베이스는 아르호이 by 룰파벤트. **3** 외부를 연마하여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한 양손잡이 머그와 오브제 실린더 베이스는 모두 김민선 작가 by 선과 선분. **4** 푸른색 유리 화병은 김동완 작가 by 제로룸152. **5** 그레이 컬러 도자기 화병은 문다운 작가 by 제로룸152. **6** 양리 마티스 정물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 블루 화병과 밀차 그린 컬러 볼은 손세은 작가.

*하늘색 페인트벽 컬러는 'DE5785'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오른쪽 페이지 1 수직·수평 구조가 가지는 시각적 효과와 공간을 표현한 'interweave series bench'는 박은총 작가. **2** 회화 작품〈푸른 인개가 피어오르는〉은 김경양 작가. **3** 끊기지 않는 선이 하나의 오브제로서 간결한 조형미를 표현한 의자 'Through the water'는 정그림 작가. **4** 카튼 주름에서 영감을 받아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한 유니형 테이블 'DRAPE'는 TIEL. **5** 그린과 블루 컬러 반투명한 아크릴 소재가 독특한 '슬로프 베이스'는 니나하. **6** 비정형의 유리 문진은 양유완 작가. *베이지그레이 컬러 페인트벽은 'DE6212'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원쪽 페이지 1 자연의 축약체인 돌을 기준으로
비례를 만들고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해 기능성을
부여한 조형물 '무위'는 이시산 작가. 2 자개 조각을

접사 촬영하여 확대된 이미지를 인쇄해 장식한

병풍 '자개의 화소(Pixel of Pearl)'는 스튜디오

밀리언로지스. 3 인체 골반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회전식 철제 스톤 'CROTCH'는 TIEL.

오른쪽 페이지 1 상판에 일정한 깊이와 간격으로 훔을

파서 장식한 '지그재그 소반'은 한동엽 작가.

2,7 실을 감아 만든 색색의 조각들을 배치해 이름다운

면으로 구성한 '이기자기' 테이블과 '미니 소반

시리즈'는 모두 전보경 작가 by 피아즈. 3 아크릴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현대 제기 祭器. 현대의

재해석은 김보경 작가. 4 반닫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즈넉이' 소파 캐비닛은 전보경 작가 by

피아즈. 5 자연으로부터 느낀 심상을 색면의 중첩을

통해 표현한 'Under a tree' 액자 오브제 작업은

김다혜 작가. 6 색의 배색과 작품 표면의 질감을 통해

부드러움을 연출한 'Tone in Tone Cylinder' 오브제는

공해린 작가. 8 끊기지 않는 선이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콘셉트의 테이블 'Mono series'는 정그림 작가.



강직하고 소박한 점, 선, 면

전통 목가구의 선은 대부분 직선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다. 과도한 장식과 기교를 피하고 나무의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여유가 스며들어서다. 일부러 미완성을 추구해 비정형의 원을 보여주는 달항아리는 담백하고 강직하며 우아함이깃들었다.

숨 막히는 절정이 아닌 간결하고 소박한 조형미는 요즘 선호하는 미니멀리즘에 달아 있어.

여전히 한국적 미감은 우리의 일상을 이름답고 다채로운 표정으로 담아낸다.



매화가 필 무렵

가령 매화가 다른 봄꽃들과 함께 피어났다면 이토록 고결한 대접을 받았을까?

눈바람 속에서 추위를 밀고 꽃송이를 피우기에 그 강인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기울인다. 매화의 보드라운 꽃술과 애듯한 향기를
닮아 피부에 맑은 생기를 전하는 설화수의 설린 라인도 봄을 재촉하며 환하게 피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장소 협조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맑은 영화를 누르는 눈가

눈 속에서 태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을 담아 또렷하게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설린아이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가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 다양한 자극 요인으로 인한 눈가 피부 피로를 케어하여 눈가 가득 환한 생기를
살린다. 진정 효과가 뛰어난 상심자 성분이 더해져 피부 피로를 해소해 노화의 징후와 디크서클을 맑게 케어하며
서벗 제형의 젤 크림이 수분과 탄력을 부여한다. 함께 구성된 자막 아이마시저는 눈가 피부의 미세 순환을 돋고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강력한 안티에이징을 경험할 수 있다. 20ml 10만원대



그윽히 맑고, 진한 마음

매화 속 응축된 향산화 에너지를 전하게 담은 설린에센스는 녹매화 꽃봉오리 성분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피부 노화 징후를 완화하고 피부 생기를 더한다. 매실, 거승자, 해송자, 모과,
영실 등으로 구성된 밤이오방종실 성분을 더해 더욱 건강하고 맑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고,
꿀같은 농축감을 담은 제형은 피부 탄력을 선사하며, 피부에 촘촘하게 발리면서도 산뜻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30ml 8만8천원, 50ml 14만원



영롱한 봄의 고백

치가운 눈 속에서 기어이 봄은 온다고 알리는 매화의 단단한 고백처럼 설린수는 매화의 응축된
향산화 에너지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전하고 매끄러운 피부 비장을 가꿔준다. 피부 보습을 돋는
향등 열매 성분을 함유해 유연하고 균형 있는 피부 비장을 선사하고 농축감이 있는 텍스처가 가볍게
스며들어 수분을 빠르게 공급한다. 은은한 매화를 닮은 향은 피부와 마음에 편안함을 더한다.
설린수와 함께하는 매화의 수련수련한 속삭임이 피부에 봄의 생기를 피운다. 150ml 7만5천원

꽃빛 머금은 꽂다운 찻자리

여리고 맑게 피어난 꽃을 세심하게 닦고 정성으로 말린 꽃차. 꽃 같이 아름답고 꽃 같은 향기를 머금어, 마시는 내내 마음도 향긋하게 피어난다. 봄날의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도 씻어줄 어여쁜 꽃차와 담백한 다과로 차린 작은 꽃잔치.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 안소연(단자리) 스타일링 뷔로 드 글로디아 꽃차 협조 그린 살롱



왼쪽 페이지 굽 있는

백자 잔은 이혜미 작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저그는 백경원 작가.

원형 미니 굽접시는

백소연 작가. 화병에

꽂힌 꽃을 오브제로

표현한 도자기 작업은

김지현 작가 by

이노메씨.

오른쪽 페이지 백자 꽃

접시는 모두 심보근

작가 by 무자기



장미 꽃차 '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 꽃차는 풍성한 장미 향과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 한 모금만으로 금세 행복해진다. 피로회복 효과로 춤곤증을 이겨내게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

팬지 꽃차 양증맞은 펜지 꽃차는 꽃색에 따라 보라, 청록, 노랑 등 수색이 다양하다. 맛은 구수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

목련 꽃차 봄을 알리는 꽃, 목련 꽃차는 노란 수색을 띠고 알싸한 맛과 진한 향기를 지녔다.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 원화에 도움을 주고 항균·항염 효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환절기 건강을 지켜준다.

도라지 꽃차 별을 닮은 모양과 푸른빛 수색이 활출한 감상에 젖게 한다. 미세먼지 속에서 목을 보호해주는 신비로운 효능도 사랑스럽다.

마음을 평온하게 이끄는
팬지 꽃차 & 꽃절편



재료

멥쌀가루 100g, 물 3큰술, 천연 가루(단호박, 백년초, 자색고구마), 포도씨유

만드는 법

1 볼에 멥쌀가루와 물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비벼 찰가루를 소보루처럼 뭉친다. 2 짚기에 ①을 깔고 김이 오른 솥에 올려 20분간 전다. 3 볼에 ②를 붓고 포도씨유를 바른 손으로 떡 반죽을 치댄다. 4 ③의 흰 반죽을 삼등분한 다음 천연 가루들을 넣어 색색의 반죽을 만든다. 5 각각의 색 반죽을 가늘고 길게 빚은 뒤, 나란히 붙여 기둥 모양을 만든다. 6 반죽을 적당히 떼어내 동그랗게 빚은 후 떡도장으로 지그시 눌러 찍고 포도씨유를 바른다.

칼칼한 목이 시원해지는 힐링
도라지 꽃차 &
단호박 크림 흑임자 떡케이크

재료

(흑임자 설기) 멥쌀가루 250g, 흑임자 가루 15g, 물 4큰술, 설탕 30g (단호박 크림) 백양금 60g, 상온에서 녹인 버터 50g, 연유 15g, 단호박 퓨레 20g (치즈 크림) 크림치즈 130g, 버터 35g, 슈가파우더 35g, 레몬즙 12g

만드는 법

1 볼에 멥쌀가루와 흑임자 가루를 넣고 섞는다. 분량의 물을 붓고 고루 섞은 후 체에 2회 친 다음 분량의 설탕을 넣고 고루 섞는다. 2 짚기에 시루蔑(시트)을 깔고 찰가루를 3cm 정도 올린 뒤 윗면을 평평하게 정리한다. 이때 칼금을 넣어 원하는 크기를 만든다. 3 김이 오른 솥에 올려 20분간 찌고 5분간 뜀들인 후 한 김 식힌다. 4 볼에 단호박 크림과 치즈 크림 재료를 각각 넣고 크림 점성이 되도록 휘핑한 뒤 짤주머니에 넣는다. 5 흑임자 설기 위에 ④의 크림을 올려 장식한다.



왼쪽 페이지 원형 장식이 달린 백자 잔은 김예원 작가.
푸른 빛이 도는 백자 원형 굽접시는 강고운 작가.

오른쪽 페이지 꽃 모양 굽접시는 심보근 작가 by 무자기.
꽃잎을 여러 겹 겹친 형태의 백자 볼은 박성극 작가.

우아한 향기에 물들다
장미 꽃차 & 장미 생양갱

재료

한천 가루 2g, 우려낸 장미 꽃차 1컵, 설탕 75g, 백양금 160g, 라즈베리 퓨레 60g, 레몬즙 5g,
장미술 5g(생략 가능), 장식용 마른 장미(생략 가능)

만드는 법

1 냄비에 한천 가루와 장미 꽃차를 넣고 한천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중강불에서 끓인다. 2 ①에
설탕을 넣고 점성이 생길 때까지 저어가며 끓인다. 3 ②에 점성이 생기면 백양금을 넣고 주걱으로 저어
잘 풀어주고 농도가 생기면 라즈베리 퓨레, 레몬즙을 넣고 색이 균일해질 때까지 섞는다. 4 거품이
끓어오르고, 물엿 정도의 점성이 생길 때까지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줄인다. 5 불을 끄고 장미술을 넣어
빠르게 섞은 뒤, 몰드에 붓고 실온에서 3시간 이상 굳힌다. 6 완성된 양갱 위에 장미꽃을 장식한다.



왼쪽 페이지 백자 꽃 접시는 모두 심보근 작가 by 무자기
오른쪽 페이지 꽃잎 모양의 접시는 심보근 작가
by 무자기. 초록색 원형 웃침 코스터는 박수이 작가.
백색 꽃 접시는 천광요 by Handle with care.
백자 속우는 소시요 by 뷔로파파이.

건강을 꽂 피우는 페어링
목련 꽃차 & 피칸 잣강정



재료

(피칸강정) 피칸 100g, 물 150g, 설탕 50g, 소금 1g, 물엿 40g, 꿀 10g, 튀김기름 적당량
(잣강정) 잣 1컵, 설탕 25g, 물엿 25g, 소금 1g

만드는 법

(피칸강정) 1 피칸은 뜨거운 물에서 10분 정도 끓여 떫은 맛과 불순물을 제거한 뒤 깨끗한 물로 행군다.
2 냄비에 피칸, 물, 설탕, 소금을 넣고 끓여 반 정도로 줄면 물엿을 넣고 더 줄인다. 3 피칸에 윤기가
생기면 꿀을 넣고 섞은 뒤 체에 밭쳐 여분의 시럽을 제거한다. 4 피칸을 100℃의 온도에서 튀긴 뒤 2~3분
정도 후에 온도를 높여 140℃에서 튀기고 붉은빛이 돌면 건진다.
(잣강정) 1 냄비에 물엿, 설탕, 소금을 넣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끓인다. 2 기름기 없는 팬에 잣을
노릇하게 볶는다. 3 볼에 ①의 시럽과 잣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한 덩어리로 만든다. 4 도마 위에 종이
포일을 깔고 벼무린 잣을 부은 다음 밀대로 얇게 편다. 5 어느 정도 식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천상의 아름다움, 그 이상에 다다르려는 마음

Agra & Florence

인도 아그라 & 이탈리아 피렌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신의 영역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
사랑하는 여인의 삶을 영원히 증명하고자 하는 열병…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며 그 마음들을 헤아려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꽃이 피어나는 곳'이라는 그 이름처럼 피렌체는 문명과 예술이 친밀하게 꽂힌 과거의 영광을 여전히 지켜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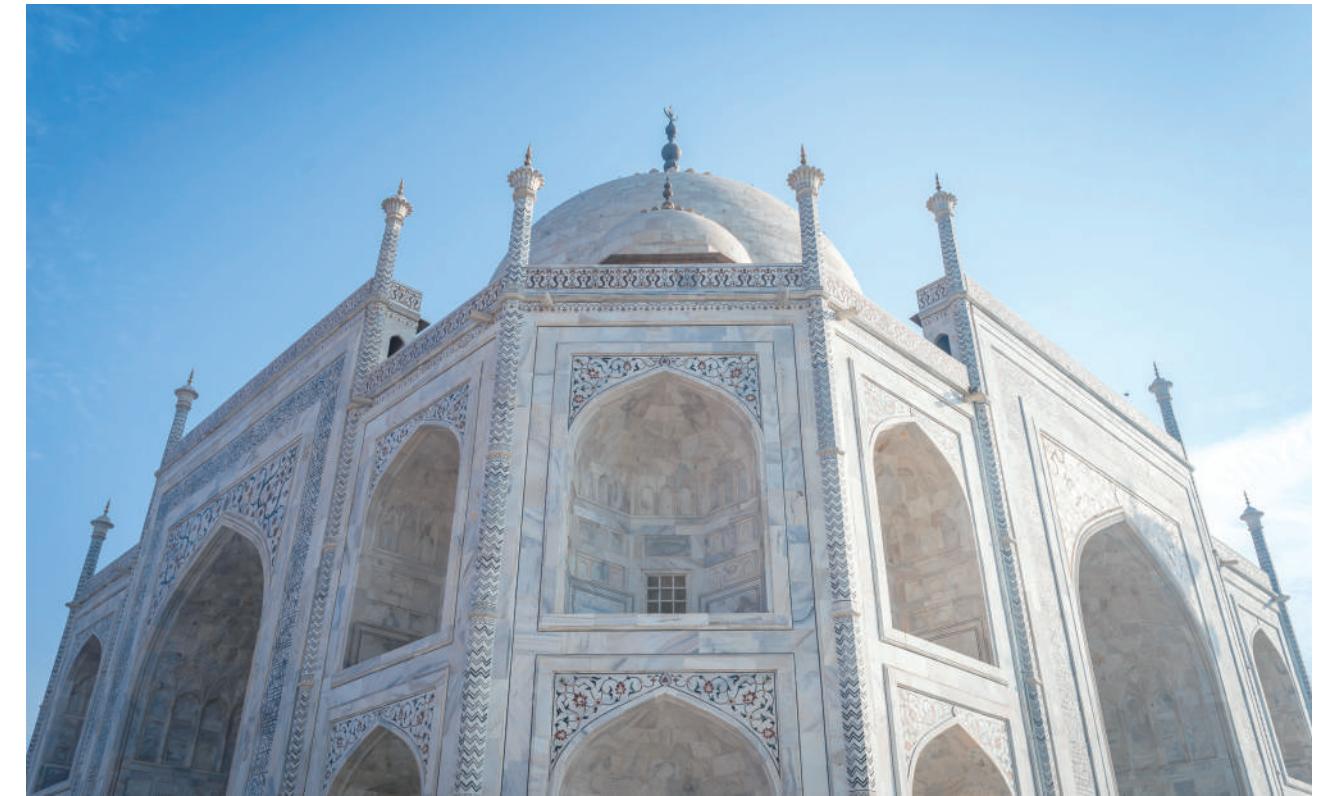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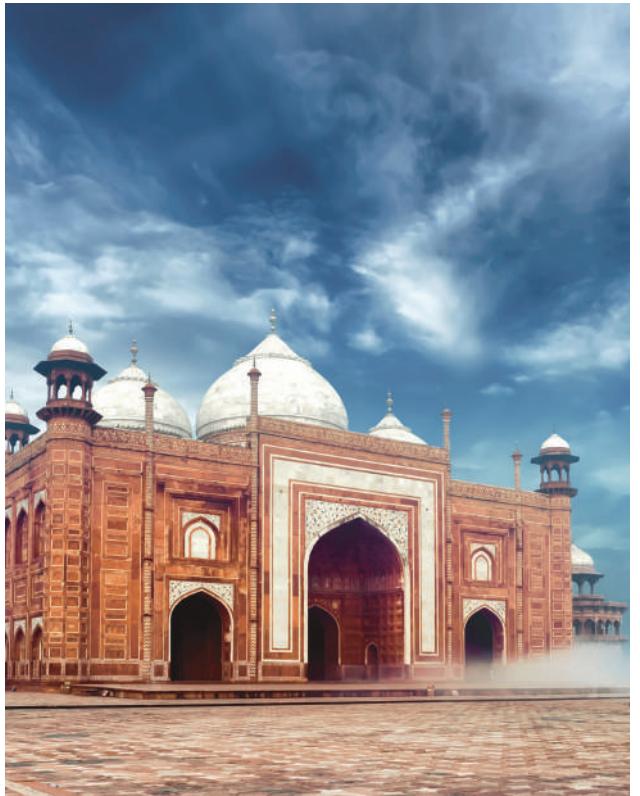


거대한 둑을 얹은 아름다운 성당과 그 주변에 펼쳐진 야트막한 건물들. 지중해 특유의 쪽빛 하늘이 빛은 벽돌 도시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배색을 만든다. 어릴 적 그림엽서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눈앞에 고스란히 재현된다. 피렌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주도인 피렌체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꽃피운 건축과 예술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불린다.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유럽과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해도 과장이 아닐 터. 또한 피렌체는 수많은 예술가를 후원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문 메디치 가문의 고향이기도 하다.

'피렌체 Florence'라는 이름은 아르노 강변에 꽃이 만발해 올리우스 카이사르가 '꽃이 피어나는 곳(Florentia)'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 이름 때문일까? 피렌체를 걷고 있으면 꽃을 만나듯 르네상스의 빛나는 유산들과 미주하게 된다. 역사가 지금에 그대로 녹아들어, 오늘의 일상을 함께 살아나간다. 그중에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두오모 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 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붉

Florence is the capital city of Toscana, Italy. This is regarded as the 'home of Italian Renaissance' for its architecture and art that flourished during the Renaissance in the medieval er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Florence was the center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Europe and the world between the 14th and 16th centuries. It is also home to the famous Medici Family that sponsored countless famous artists to realize Noblesse Oblige.

The name Florence originated from the word Florentia, a term used by Julius Caesar to describe this place where the flowers bloom, for there was an endless colony of flowers along the Arno River. As you walk across Florence, you will come across as many captivating heritages of the Renaissance period as you can meet the flowers in the city. History merged with the present to exist in everyday life and Santa Maria del Fiore, duomo cathedral which represents Florence, is one of the history. You will find the Cathedral at the center of the city with its massive red



옛 무굴제국 황제의 절절한 사랑이 깃든 타지마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 불린다.

온 둘을 얹고 서 있는 두오모는 피렌체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다. 흰색, 분홍색, 녹색의 대리석으로 장식한 외관이 고풍스럽고 우아하다. 최대 규모 성당을 짓기 위한 도시 간 경쟁이 이처럼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는 게 재미있다. 총 공사 기간은 150년에 이르러, 종탑과 건물 구조는 중세 양식으로 시작해 돔과 조형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천재적인 발상의 혁신으로 오랜 고민이었던 둑을 완성한, 브루넬레스키의 집념이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숙제를 풀어낸 그의 활약이 전설처럼 거리를 흐른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유럽 르네상스 문화의 결정체로 존재한다면, 인도 아그라는 이슬람 예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아무나 강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아그라는 16세기에서 19세기 인도를 지배한 이슬람 왕조 무굴제국의 수도였다. 당시 건축된 타지마할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그 가치를 면밀히 보존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깃든 애틋한 사랑 이야기 역시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무굴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인 샤 자한에겐 아름다운 왕비 룸타즈 마할이 있었다. 깊이 사랑했던 그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dome on top. It is the true landmark of Florence that can be seen from

anywhere in the city. It took nearly 150 years to complete the cathedral, so the bell tower and the building itself started out in the medieval style, whereas the dome and sculptures were finished in the Renaissance style. The dome was completed with the ingeniously innovative ideas and tenacity of Brunelleschi. The city tells the legend of his performance to resolve a matter that was almost impossible to solve.

Florence of Italy exists as the essence of European Renaissance, while Agra of India is the cluster of Islamic art. The ancient city of Agra by the Yamuna River was the capital of the Mughal Empire, the Islamic dynasty that ruled India from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19th century. The Taj Mahal, which was built back then, is still one of the seven mysteries of the world and carefully preserv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also serves as a reminder of a sad love story that has captivated the hearts of the tourists. Shah Jahan, the fifth emperor of the Mughal Empire, had a beautiful queen named Mum-

슬픔에 잠긴 왕은 추모를 위해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세우기로 한다. 그렇게 시작한 건설은 22년이나 지속되었다. 샤 자한은 자신의 집권 기간인 30년 중 3분의 2가 넘는 시간을 타지마할에 쏟았다. 이 아름다운 무덤을 완성하기 위해 2만여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이슬람 건축의 대가 이스마엘 에펜디, 이탈리아의 피에르토 베로네오와 같은 유명 건축가와 장인이 손길을 더했다. 궁전을 꾸민 보석은 터키와 미얀마, 이집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공수했으며 순백의 대리석은 라자스탄 지역의 마크라나 광산에서 코끼리들이 운반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타지마할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건물의 외벽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가르침과 화려한 꽃무늬로 가득 채웠고 안쪽 벽 역시 무굴제국 특유의 꽃과 보석 문양으로 장식했다. 아무나 강을 바라보며 고고하게 서 있는 타지마할은 황제가 왕비에게 보내는 사랑의 상징이자 제국의 막대한 힘을 보여준다. 결국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 너머 아그라 성에서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지냈다는 샤 자한의 서글픈 이야기는, 마치 후광처럼 타지마할의 주변을 감싸며 반짝이고 있다. S

taz Mahal. However, she passed away and the emperor with grief decided to build a huge and beautiful tomb in memory of his wife. Building her a beautiful and magnificent tomb took 22 years to complete. More than 20,000 workers were deployed to complete the beautiful tomb, and a number of famous architects and masters were brought for it, including Ismail Efendi, a master of Islamic architecture from Turkey, and Geronimo Vereneo from Italy. The gemstone used to decorate the palace was imported from Turkey, Myanmar, Egypt, China, among others, and the pure white marble was transported by elephants from Makrana, Rajasthan. Taj Mahal draws perfect symmetry from every direction.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is filled with the teachings of Koran, the Islamic manuscripts, and beautiful floral patterns, while the interior walls are decorated with the unique floral and jewel patterns of the Mughal Empire. Standing elegantly by the Yamuna River, Taj Mahal is a symbol of the Emperor's love and a reflection of the Empire's powers.

완벽한 아름다움의 환희

새봄의 얼굴이 환한 기쁨으로 넘칠 소식이다. 촘촘하게 피부를 채워 완벽한 바탕을 완성해줄 퍼펙팅 라인이 오롯이 갖춰졌다.

비로소 맞이하게 된 천만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황홀한 봄, 설렘이 일렁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오렌지 컬러 아크릴 원형 오브제는 도한결 작가 by 모조산업

퍼펙팅 파운데이션 &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SPF17 / PA+)

Perfecting Foundation & Perfecting Foundation Glow

파운데이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화수의 정성과 기술을 정교하게 담았다. 특화 기술이 적용된 고운 커버 입자가 기미 잡티를 커버하고, 촉촉한 에멀젼 타입이 모공과 주름을 부드럽게 채운다. 피부에는 가볍게 밀착되고 속은 촉촉하고 편안해 하루 종일 무결점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파운데이션이다. 퍼펙팅 파운데이션은 상쾌한 촉감과 얇게 밀착되는 마무리를 느낄 수 있고,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는 보습 코팅된 색소가 피부를 물들이듯 밀착되어 본연의 피부와 조화를 이룬 컬러와 윤기를 표현한다. 35ml 7만원

How to use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 후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피부 결을 따라 펴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마무리한다.



퍼펙팅 파우더

Perfecting Powder

솜듯 편안한 메이크업으로 마무리해주는 피니싱 파우더. 미세한 입자가 피부 결점과 주름을 감추고 모공에 끼임 없이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부여한다. 보습 코팅 파우더와 식물 유래 보습 성분이 건조함 없이 메이크업을 고정시켜 우아하고 견고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20g 6만5천원

How to use 메이크업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 사용 후 퍼프로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준다.





퍼 펙 텅 트 원 케 이 크

(SPF 30 / PA+++)

Perfecting Powder Foundation

심중 카버 파우더가 눈에 보이는 기미.
잡티부터 눈에 띠는 모공, 주름까지
기벼우면서도 섬세하게 커버해준다. 또한
피부 친화력이 우수한 보습 코팅 파우더가
피부에 촉촉하게 밀착되어 건조함 없는
메이크업을 선사해준다. 1g 6만5천원
How to use 메이크업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 사용 후 퍼프로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준다.



퍼 펙 텅 스 킨 커 버

(SPF 26 / PA++)

Perfecting Foundation Balm

보다 강력한 피부 커버를 담당하는 파운데이션 밤으로 피부 바탕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크리미한 텍스처가 커버력은 높으면서
무겁지 않고 촉촉한 메이크업 바탕을 다져주고 한결같이 지속되어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하다. 14g 6만5천원

How to use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 후 퍼프로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피부 결을 따라 펴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마무리한다. 꼼꼼한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는 퍼프를 이용하여 점을 콕 찍듯이 커버해준다.

레드 컬러 아크릴 오브제는 도한결 작가 by 모조산업

퍼팩팅 라인 2600여 시간, 1년 동안 피부가 메이크업에 덮여 있는 시간이다. 주 5회 이상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평균 10시간 이상 화장을 유지해 대다수의 사람이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모공을 막고 있어 피부가 숨을
쉬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걱정이다. 설화수는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퍼펙팅 메이크업
라인을 선보인다. 새봄과 함께 찾아온 퍼펙팅 라인은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킨커버, 트윈케이크
등 총 4가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촘촘한 구성을 갖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바탕을 책임진
다. 이들 제품에는 살아 숨 쉬며 천 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에서 착안한 통기성 메이크업 기술과 설
화수만의 스킨케어 성분들이 쳐방되어 숨 쉬듯 편안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패키지 디자인
은 설화수의 상징인 매화가 아름답게 만개한 모습으로 표현했다. ‘손 안의 공예품’으로 손색이 없는
퍼펙팅 라인은 빛나는 봄의 황홀한 선물이다. S

Perfecting Makeup Line The average duration that your skin spends under makeup each year is 2,600 hours. Women use base makeup at least 5 times a week, and they keep it on for 10 or more hours every day on average. For this reason, most women are worried that their makeup may potentially be detrimental to their skin. One of the primary concerns stems from the fear that base makeup products might clog up the skin pores, thus preventing skin from breathing properly. This is why Sulwhasoo is launching the new Perfecting Makeup Line. Based on the research on some of the major concerns that Korean women have regarding makeup, the Perfecting Line is developed with focus on keeping skin comfortable and flawless all day so that every woman can realize the perfect look. The Perfecting Makeup Line, which features a wide range of base makeup products, including foundation, powder, foundation balm, and powder foundation, will be available for the upcoming spring season. For the Perfecting Makeup Line products, Sulwhasoo used a new type of breathable makeup technology inspired by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that “breathes”) and some exclusive skincare ingredients to keep skin not only healthy and beautiful, but also comfortable like it is breathing air without any impediments. For the package design, Sulwhasoo used plum blossoms in full bloom, which is the signature symbol of the Sulwhasoo brand, thereby making the Perfecting Makeup Line the ideal gift during the wonderful and splendid spring season.



홀리스틱 타임리스 뷰티 터치는 설화수의 럭셔리 안티에이징 진설명작 라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흑요석 마사저와 적송스틱 마사저를 사용해 얼굴, 두피, 목과 어깨 터치를 통해 최고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궁극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설화수의 터치 Sulwhasoo's Touch Brings Out the Ultimate, Vitality in Your Skin

활력 넘치는 젊은 피부를 위한 럭셔리 케어 서비스가 설화수 안티에이징의 정수인 진설명작과 함께 펼쳐진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준비한 명작의 호시를 누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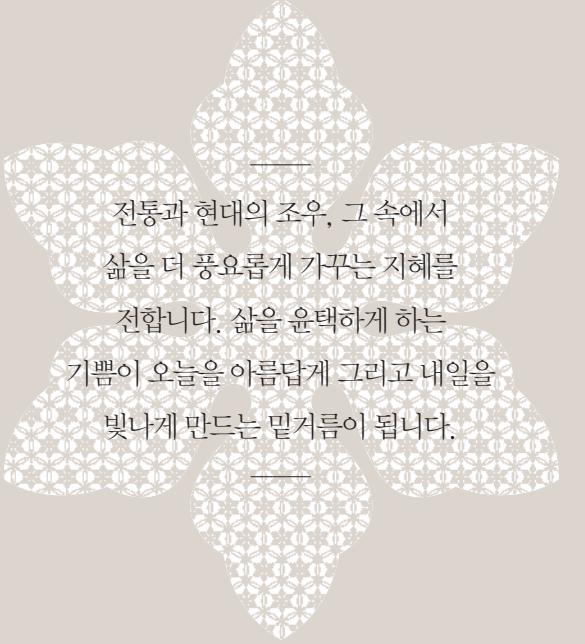
에디터 박효성 사진 오희원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의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궁극의 안티에이징을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설화수의 헤리티지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홀리스틱 타임리스 뷰티 터치’ 서비스다. 고귀한 영지 베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로 피부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진설명작크림과 진설명작에센스를 직접 경험하고, 여기에 더해진 감동적인 터치는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며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깊은 에너지를 섬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흑요석 마사지, 적송스틱 마사저와 함께 진행되며 얼굴선이 무너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턱밑과 목, 즉 하트존을 피부 생생력을 복돋아주는 흑요석 마사저로 터치하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두피 순환을 도와 심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두피 안티에이징 터치가 이어지고, 스트레스로 뭉치기 쉬운 목과 어깨선을 관리하는 마지막 터치는 적송스틱 마사저로 마무리된다. 한국의 전통 다크이 방망이를 닮은 적송스틱 마사저는 치유력이 뛰어난 소나무를 소재로 사용하고 넓은 균육의 뭉친 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줘 목과 어깨선이 우아해지고 얼굴선을 아름답게 관리한다.

홀리스틱 타임리스 뷰티 터치는 하트존과 두피 각 10분과 목과 어깨 10분 총 두 단계로 시간과 공간, 상황에 따라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 맞춤 서비스로도 제공한다. 절정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깨우는 안티에이징을 경험하는 선물 같은 시간은 설화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무엇보다 감동적이다. S

The Holistic Timeless Beauty Touch service is the perfect program for experiencing the heritage of Sulwhasoo and its devotion towards skincare. It gives visitors a chance to try the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and the Timetreasure Honorstige Serum products. The Holistic Timeless Beauty Touch service also uses an Obsidian massager and a Red Pine stick massager to help the energy contained by the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and Serum products penetrate the skin deeply and thoroughly. The massaging service starts by using the Obsidian massager — which stimulates the skin and boosts its resilience — in the “heart zone” (under the chin/jaw, neck area). The massaging routine then moves on to the scalp. An anti-aging massaging technique is used to relax the body and mind. When the scalp routine has been completed, the massage ends with a routine for the neck and shoulder areas using the Red Pine massager. The Red Pine massager was inspired by a traditional Korean ironing baton and it is made with pine tree, known for its outstanding healing benefits. The massaging routines for the Holistic Timeless Beauty Touch service typically take 20 minutes in total. What makes the Holistic Timeless Beauty Touch service even more amazing is that it's available for free. All you have to do to experience this magical anti-aging program and to bring out the ultimate beauty and vitality of your skin. Log on to Sulwhasoo's official website and make a booking on an available date. Try the Holistic Timeless Beauty Touch service today!

의 히 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기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맙거름이 됩니다.



끈이 예술이 되는 손끝의 기적

전 통 매 드 팔 찌 만 들 기

기다란 선일 뿐이었는데 어느새 동글동글한 열매가, 화려한 꽃과 나비가 된다. 매듭은 맷고, 엎고 짜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지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희원

'매듭을 짓는다', '매듭을 풀다'와 같은 표현을 흔히 쓴다. '끈이나 줄을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이란 사전적 정의에 더하여, '어떤 일에서 순조롭지 못하게 막힌 부분' 또는 '일의 순서에 따른 결말'이란 의미도 갖는 매듭은 그만큼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공예 기법이자 관습적인 삶의 기술이다.

전통 공예로서 매듭은 끈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사를 정련해 명주실을 곱게 물들이고 끈목이 되기까지는 수십 단계의 과정이 있다. 실을 삶아 말끔히 행구고 실타래를 풀어 감아내 합사를 하고 물을 들이는 모든 과정엔 찬찬한 정성이 요구된다. 끈목은 '다희多繪라고도 하며, 술과 함께 매듭의 구성요소다. 매듭과 더불어, 그리고 그 자체로서 옛 복식과 의구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매듭의 사용처는 무척 다양하다. 도포끈이나 허리띠, 노리개와 같은 복식 용품과 발걸이, 죽자술, 방장, 모기장 유소(流蘇, 가마 등에 술을 장식해 늘어뜨리는 것) 등 실내장식 용품, 임금이 타는 가마 중 하나인 연輦과 황후들이 탄던 궁중 가마인 소교小轎과 같은 궁중용품에 사용됐다. 또한 불교의식의 깃발이나 탱화 등의 장식으로도 쓰였으며 악기와 가마, 상여 등의 장식으로도 쓰였다.

매 드 의 역 사

매듭의 혼적은 농경이 시작되었던 신석기시대에도 존재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인 방추차(紡錘車, 가락바퀴)와 관옥簪玉, 곡옥曲玉을 통해 당시 매듭이 생활에 적극적으로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방추차는 섬유질을 이어 고임을 주면서 실을 만들거나, 긴 섬유에 고임을 주어 실을 만드는 데 쓴 도구다.

끈끈을 맷는 방식의 매듭은 원삼국시대 유물인 다호리 출토 승문토기(쇠뿔항아리)의 새끼무늬 장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끈 끈이 장식용 매듭으로 발전해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고분 벽화에서 보인다. 황해도 안악군 유순리에 있는 고구려시대 안악 3호분 벽화에서 묘주 부부의 초상에 나타난 평상의 닫집에 방장을 끊은 끈과 술에서 매듭의 혼적이 나타나 있다. 한편 <삼국사기>의 복식조를 살피면 삼국 복식 모두 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듭이 당대 의복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신라 흥덕왕 9년에 왕이 교지를 내려 복식의 호사스러운 장식을 금지하고 신분별 복식 형태를 제시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허리띠와 장화끈 장식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신라인들이 매듭 맷은 끈이나 띠에 화려한 장식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듭과 술 장식은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한 영향이었음이 짐작된다. 신라 진덕왕 때 당나라에서 복식 문물을 도입해 의복 제도를 정비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매듭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추정된다. 일본식 복식에 쓰이는 끈의 명칭 중 아직도 '시라기구미[신라조新羅組]'라는 것이 있



준비물 가위, 송곳, 닦비(매듭 고 사이에 실을 끼울 때 쓰는 도구) 접착제, 매듭 끈

만드는 방법

1 책상 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매듭 끈을 고정하여 네 개의 고로 십자 모양을 만든다.

2 가운데를 고정해 십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쪽 고를 접어서 오른쪽 이웃한 고 위로 넘기고, 위에 있는 고를 직각으로 엎어놓는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고도 직각으로 엎어놓은 후, 왼쪽의 고를 오른쪽으로 엎어놓은 고에 끼운다.

3 네모 모양으로 생겨난 매듭을 송곳으로 반듯하게 잘 정리해 편다.

4 매듭을 중심으로 긴 끈목을 겹쳐 접은 후 나머지도 차례대로 접어 반대 방향으로 엎어놓고 마지막 고를 위쪽으로 엎어서 처음에 생겨난 고에 끼운다.

5 사방으로 고를 접어당겨 길이를 맞추고 여섯 개의 꽃잎을 다듬어 동심결 매듭 모양을 만든다. 원하는 방식으로 또 매듭을 만들어 장식해 팔찌를 완성한다.

취 프로젝트 '우리의 것들이 현대인의 삶에서 다시 그 쓰임을 다하게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사라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를 현대적인 콘텐츠로 새롭게 제작하는 플랫폼이다. 한국 각 지역의 전통 공예 장인과 협업해 현대인이 직접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예품을 만든다. 홈페이지 www.chiproject.co.kr

고, 끈을 짜는 틀의 종류 중엔 '고라이우찌[고려타高麗打]'가 있는 것이 그 근거다. 고려시대 매듭의 발달은 <고려도경>에 잘 나와 있다. 여기에는 고려시대 각종 의식이나 복식에 사용했던 여러 종류 물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매듭과 관련한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게 서술된다. 고려시대 매듭의 유행은 고려청자에도 나타나는데 고려청자 중 매듭 무늬를 그려 넣어 장식한 것이 있을 정도다.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 복사음각 모란문매병(青磁象嵌牡丹文梅瓶)의 네 모서리에 유소가 달린 매듭이 부착된 사각 보(褓)가 시문되어 있다. 또한 고려시대 관음탱화나 지장탱화 속 보살의 가슴에 장식된 각종 매듭 역시 당시 매듭의 화려하고 섬세한 모양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들어와 매듭은 그 용도가 더욱 다양해져 실생활 전반에 널리 쓰였다. <세종실록>의 '가례서례(家禮序例)'와 '홍례서례(婚禮序例)'에 각종 기물의 유소, 매듭, 술 장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당시 매듭은 매우 화려하고 사치한 장식품으로 인식되어, 상류층에 특히 사랑받았다. 조선 후기엔 궁중과 상류사회에서만 주로 쓰이던 매듭이 일반 평민에게도 유입되어 많은 종류의 장식용 매듭이 생겨났다. 조선시대 매듭은 벼슬아치의 공복인 단령에 달았던 연봉매듭 단추를 비롯해, 소매를 떼고 붙일 수 있게 한 천익(天翼) 소매 단추 등 의

복에서 많이 발견된다. 서민층이 여름철 입던 저고리인 적삼의 대부분에 매듭 단추가 달려 있다.

삶의 여정과 닮은 매듭 만들기

전통의 향기를 현대 일상에 불어넣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취 프로젝트'가 전통 매듭 팔찌를 손수 만들어보는 키트를 제작했다. 박형민 매듭 장인이 직접 짠 매듭 끈과 매듭 방법이 포함된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어려워 보여 도전하지 못했던 매듭 공예에 쉽게 다가가게 한다. 이번에 함께 만들어본 것은 동심결 매듭 팔찌로, 동심결 매듭은 '영원히 같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 매듭의 보전과 전승에 애쓰고 있는 박형민 장인은 집중해서 차근차근 매듭을 엮어나가고 때로 잘못 꼬여버렸을 때는 하나씩 오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인생에 비유한다. 그리고 보니 엎고 풀어나가는 반복은 정말 세상살이의 축소판이 아닌가. 잘못된 매듭이 풀리지 않아 힘이 들고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쳐다만 보아도 뿐듯한 팔찌가, 삶이 완성되는 것.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섬세한 기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지혜가 아닐까.



하나의 인생길을 다정하게 날으소서 Fly the Common Path of Life in Love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 동양 미술관인 기메미술관에서 본 조선시대 혼례 그림에 기러기가 올려진 상을 앞에 두고
신랑이 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기러기는 조선의 혼례에서 어떤 의미일까?

에디터 박효성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리슨커뮤니케이션

예로부터 혼례는 관호상제^{冠婚喪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정성과 예를 다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부터 혼인을 하기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일정한 의식 절차대로 신중하게 진행했다. 세세한 의미가 담긴 혼례의 시작은 기러기와 함께 이뤄진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 한 쌍을 전하며 혼례가 시작되는데 이를 '전안례^{奠雁禮}'라고 하고 신부 집에서는 기러기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레 '전안상^{奠雁床}'을 차린다. 신랑이 전안상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신부 어머니는 기러기를 조심스레 안고 가서 신부 방에 던지는데 이때 기러기가 바닥에 똑바로 놓이면 첫아들을 낳고, 누우면 첫딸을 낳는다는 점을 치기도 했다.

기러기는 한 번 맷은 짹과 평생 혜어지지 않고 지내는 생태학적 습성이 있다.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기러기에 담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배우자가 먼저 죽더라도 새 짹을 찾지 않기 위해 평생 사랑을 지킨다는 상징을 부여받게 된 것. 봄에 북녘으로 날아 갔다가 겨울나기를 위해 다시 찾아오는 철새로 음양의 이치를 따르는 새로 여겨진다. 혼례에서도 기러기처럼 음양의 도를 따라 신랑 신부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뜻을 담게 된 것이다. 이런 기러기를 앞에 두고 큰절을 하는 것은 기러기의 덕목을 본받고 부인을 맞아 백년 해로하며 살기를 맹세하는 의미다. 조선시대에 전안례가 성행한 것은 <사례편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살아 있는 기러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점차 구하기 힘든 탓으로 나무를 조각해 목기러기, 한자로 목안^{木雁}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김상윤 디자이너가 전통 혼례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기러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현한 '연(yeon)'은 먼 목적지까지 함께 날아가는 기러기들처럼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연인이 서로 교감하며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S

Since ancient times, wedding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rite of passage and celebrated with both devotion and courtesy. From finding the right spouse to planning the ceremony, every step was carefully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ituals. In a traditional Korean ceremony, every little thing has a special meaning and it starts with a pair of wild geese. The ceremony begins when the groom enters the bride's home and hands a pair of wild geese to her father. This is called 'Jeonanrye' and the bride's family prepares 'Jeonansang' with all their hearts to welcome the geese. The groom bows politely in front of Jeonansang, while the bride's mother holds the geese carefully and throws them into the bride's room. It was believed that the first child would be a boy when the geese land standing on the floor and a girl when they land on the side. Wild geese are well known for staying with their mates for the rest of the lives. This is why the wild geese represent the heartfelt wishes for the newlyweds' happy marriage. Wild geese do not look for a new mate even if their spouse dies, so they symbolize lifelong love. They are also thought to be the followers of the law of Yin and Yang as they migrate to the north in the spring and return for winter. They are used to tell the newlyweds to bring their hearts together as one following the laws of Yin and Yang, just like the wild geese. Bowing to the wild geese means learning from their virtue and living happily after.

Yeon of Designer Sang Yun Kim ha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wild geese that had symbolic meanings in traditional Korean wedding ceremonies. It conveys the wish to empathize and be happy with your lifelong companion, be it your loved one, friend, or family member, like the wild geese that fly long distances together.



목각 기러기, 광복 이후



연(yeon), 김상윤



공간에 불어넣는 영혼

공간 디자이너 김종완

대개 브랜드가 창조하고 제공하는 공간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브랜드 상표만 보아도 특정 공간의 공기와 소리,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감각적 경험. 이는 그 어떤 마케팅 수단보다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대중에게 다가간다.

글 민소연 사진 오희원

지난 2018년 10월에 새롭게 리뉴얼한 롯데호텔 내 설화수 스파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공간에 온전히 녹여낸 특별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반복적인 곡선이 만드는 부드럽고 우아한 구조적 형태, 따스하고 밝은 색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로 한국의 정서를 세련되게 표현했다. 자연의 느낌이 살아 있는 돌과 나무, 실크, 자수 등 동양적 요소들을 스파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미감을 더했다. 조선시대 '궁중자수매화도 10곡 병풍'을 재해석한 장인의 자수 작품 등 전통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을 디자인한 종김스튜디오의 김종완 대표를 만났다. 한남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많은 직원이 있음에도 무척 조용했다. 각자의 일에 집중하여 생겨나는 긴장이 서늘하게 다가온다. 그의 작업 공간은 그가 애정하는 소품들로 가득했다. 고른 것은 꽉복희 장인의 매화 자수 액자와 오문계 장인이 밀랍으로 만든 '윤회매'였다.

"이 두 개의 매화 작품은 모두 롯데호텔 설화수 스파 작업 때 썼던 겁니다. 저에겐 아주 즐거운 기억을 안겨준 작업이었죠.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상을 지내는 한순간도 허투루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일기를 펼쳐보면 협업했던 사람들과의 일, 또는 출장을 갔을 때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죠. 꽉복희 선생님의 아름다운 매화 자수, '영원히 지지 않는 매화'라 불리는 오문계 선생님의 섬세한 윤회매 복원품은 마치 일기처럼 저에게 당시 작업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자체로 무척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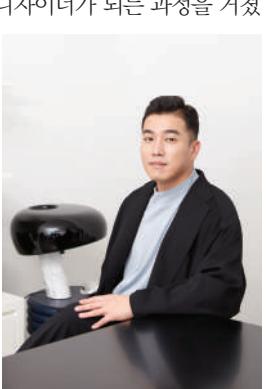
김종완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 즉 디자인을 요청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해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게 설화수는 어떤 대상이었을까?

"설화수만큼 브랜드 철학이 확실하게 정립된 곳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그 가치를 지금에 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도 무척 개방적이고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옛 것'이라 해서 무조건 전통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기존의 틀, 선입관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오래된 것에도 모던한 요소가 깃들어 있고, 모던함 속에 전통적 미감이 살아 있기도 하니까요. 그 모순된 서로의 접점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재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죠. 정형화된 단정함과 함께 자로 갈 수 없는 형태적 자유를 보여주는 한국 특유의 미감도 비슷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재능을 보였던 소년은, 어느 날 집을 고쳐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 한다. 열악하고 불편한 공간을 고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드라마틱한 TV 쇼의 장면은 소년에게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는 16세에 훌쩍 프랑스로 떠나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을 거쳤고 숱한 경험을 쌓으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애장품이라 해서 물건을 골랐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 식구들입니다. 독립한 지 이제 3년이 지났고,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했지요. 앞으로는 살짝 여유를 가지고 모두 같이 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S





한옥에서 느끼는 매화의 향기

〈매화전_허백련, 허달재〉

매화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찍 핀다고 '조매早梅', 추운 날에 핀다고 '동매冬梅', 눈 속에서 핀다고 '설중매雪中梅'라 한다. 색에 따라서 흰색이면 '백매白梅', 붉으면 '홍매紅梅'라고도 부른다. 쓰임새 많은 매실을 맺게 하는 꽃이자 군자의 이상을 뜻하는 상징인 매화는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고운 벚이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자리 잡은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도심 한가운데의 전원 마을이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생활 주거 공간인 이곳엔 주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은평역사한옥 박물관이 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안에 있는 삼각산 금암미술관에서 오는 4월 26일까지 〈매화전_허백련, 허달재〉 전시를 연다.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고고함으로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종문인화의 대가인 허백련과 그의 손자 허달재의 매화 그림을 선보인다.

의재 허백련(穀齋 許百鍊, 1891~1977)은 우리나라 근대의 대표 화가로 손꼽힌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난 그는 신학문에 뜻을 품고 서울에 올라와 기호학교에 입학했다가 1913년 일본으로 건너간다. 동경의 메이지대학에서 법정학을 공부하려던 그는 일본 화단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고 미술로 방향을 바꾼다.

이후 약 6년 동안 일본의 대표적인 남종화가 南宗畫家였던 고무로[小室翠雲]에게 영향을 받아 정통 남종 산수화를 지향하게 된다(화가의

영감을 중시하는 문인 사대부의 그림을 '남종화'로 규정하고 기법 연마를 중시하는 화공의 그림은 '북종화'로 구분된다. 남종화는 조선에서 남종문인화 등으로 불리면서 조선 후기 겹재나 단원의 진경산수화와 쌍벽을 이루었고, 현재 심사정이나 표암 강세황, 추사 김정희 등에 의해 독자적 화풍으로 발전하였다).

1922년 서울에 돌아온 허백련은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전통 산수화를 출품하고 입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7년까지 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고, 그 뒤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독자적인 작품 활동과 문하생 지도에 전념했다. 당대의 신예들이 모두 근대적 작품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허백련은 오로지 옛 기법에 충실했던 태도를 자신의 세계로 심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산수화와 문인화는 전통 남종화 정신과 기법의 철저한 계승이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일찍이 예술에 일가를 이룬 후 세속을 훌쩍 떠나, 무등산에 은거하며 검허하고 청빈한 사상가로서 살아낸 그의 벌자국은 여러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매화전_허백련, 허달재〉

장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21-2 삼각산 금암미술관

기간 2020년 4월 26일까지

문의 02-351-4343

〈매화전_허백련, 허달재〉 1부에서는 의재 허백련의 작품세계가 펼쳐진다. 그가 사랑했던 매화 작품 ‘야매도夜梅圖’와 ‘묵매도墨梅圖’를 중심으로 담백한 필묵과 격조 높은 문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인간 허백련〉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도인道人과도 같았던 허백련의 삶을 따라가 본다.

한편 〈매화전_허백련, 허달재〉 2부에서는 허백련의 맏손자이자 제자인 직현 허달재(直軒 許達哉, 1952~)의 매화 작품을 만나본다. 광주에서 태어난 허달재는 여섯 살 때부터 조부인 허백련에게 호남 남화를 공부하고 홍익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그의 화풍은 ‘온고지 신温故知新’이라는 말에 깃든 전통의 존중과 현대적 해석의 신중함을 모두 지니고 있다. 형식 면에서 옛 기법에 충실했지만, 그 해석은 현대적 감각이 강하게 지배한다. 자칫 고루할 수 있는 형식미를 대담하게 벗어나, 보다 생생하게 대상을 담아내는 리얼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면서도 문인화의 격조는 잊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에서 허달재의 작품은 사군자와 포도, 연꽃 등의 문인화 소재를 그만의 화려한 색채와 구도를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했다. 특히

홍차 찻물을 들인 고풋스러운 화지 위에 가득 펼쳐진 홍매와 백매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은 시선을 떼어낼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전시 3부는 다산의 ‘매화병제도梅花屏題圖’를 미디어아트로 소개한다. ‘매화병제도’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였던 다산초당에서 멀리 있는 본가의 시집간 딸에게 그려 보낸 서화 족자다. “꽃은 이미 활짝 피었으니 그 열매 무성하리라”라는, 딸의 혼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와 애틋한 축복이 기품 있는 매화 그림과 함께 새겨져 있다.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다가오는 ‘매화병제도’를 지나면 옛 선인들의 매화 사랑을 가늠케 하는 다채로운 회화 작품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옥 공간에서 만나는 매화 그림들이 처음인데도 정겹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운 기분도 든다.

선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혹독한 시련의 겨울이 지나면 기어코 봄이 온다는 믿음이, 소박하고 담백한 격조로 꽃을 피우고 진한 향을 내는 매화의 의지와 결국 같기 때문이다. 양상한 가지에 드문드문 피어난 매화도, 화지 가득 화려하게 축제처럼 꽃을 피운 매화도, 그래서 모두 사랑스럽다. S



의재 허백련과 그의 손자 허달재의 매화 작품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대를 잇는 예술혼이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치열하게 탐구하는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다정한 식물의 시간

꽃과 식물을 곁에 두고 싱그러운 색과 향을 즐기는 것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꽃만큼 아름다운 화병과 함께라면 일상은 꽃보다 더 눈부시다.

에디터 박효성



종들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던
화조도를 연출할 수 있는 백자 커버는
컵을 멋진 작품으로 털바꿈시킨다.
박고운 작가 by 코흐.



열매의 등근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유리 화병에 옻칠을 해 멋을
더했다. 김동완 작가 by KDF갤러리.



전통 산수봉화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을 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한 무릉도원 화병은 수베니어.

우리 민족은 유난히 꽃과 식물을 사랑해왔다. 사계절의 변화를 매화, 대나무, 국화, 소나무 등의 식물에 빗대어 노래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직접 키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만끽했다. 조선 전기 화훼 원에서인 <양화소록>을 저술한 강희안은 꽃 기르기가 격물치지格物致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했다. 꽃을 기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간다는 의미다. 추위를 무릅쓰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에게서 굳은 의지를 배우고, 연꽃에서 순수한 정신을, 국화를 통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식물 사랑이 남달랐던 실학자 정약용은 ‘꽃을 보고 기르는 것은 마음을 기르는 일로서 아무리 과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식물을 가까이하고 기르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윤택하게 가꿔주기에 그만이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을 추천하지만 화병에 꽂 한 송이만 꽂아 두어도 충분하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디자인 화병은 공간에 봄을 채워주는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다. 작은 다육식물이나 테이블아자, 스킨답서스 등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을 키워보는 것도 초록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수운 방법이다. S



강원도 석공이 가공 후 남긴 돌을
베이스로 하고 아크릴 테이블을
올려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식물꽂이는 쉴위댄스 by 키비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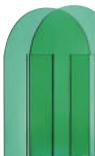
화분과 어항이 결합된 'OWN AQUA'는
식물과 물고기에게 필요한 물을
공유하고 물고기의 배설물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 퍼스트 해피 스톤.



입구가 불 형태인 뚜껑이 있어
다육식물 등을 수경재배 하기에 좋고,
뚜껑을 빼면 일반 화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키토 by 에이치픽스.



꽃봉오리를 닮은 형태로 한두 송이의
꽃을 꽂아두기 좋은 화병. 자연의
곡선을 닮아 꽃이 없어도 공간에
활력을 선사한다. 클리아비.



1980년대 멤피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 구성과
초록색 유리가 대담하고 근사하다.
엔클레버링 by 리빈.



인상주의 화가들이 쓰던 색채분할법을
적용해 빛의 반응에 따라 은은하게
퍼지는 색감을 표현한 아크릴 화병
'멜로우 컬렉션'은 해턴



흙을 얇게 펴서 종이를 다루듯 자르고
접어서 형태를 만든 화병. 모던한 형태와
개성 있는 불룩감이 색다르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경쾌하다. 이보미 작가.



고대 세라믹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형태의 페이퍼 베이스.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씌우면 근시한 디자인 화병을
완성할 수 있다. 옥타에보 by 리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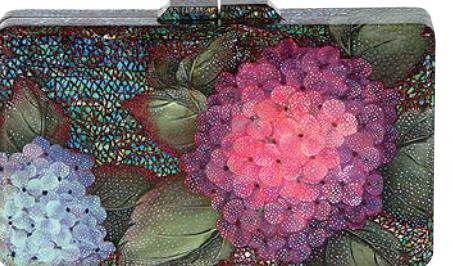


호두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색과
결이 다른 여러 수종의 나무 조각을
조합해 편안한 패턴을 만든 원목 화병은
에이프릴스케이프.

화사한 마음을 담아 든 작은 봄

겨우내 들었던 어둡고 무거운 가방은 내려놓고 이제는 봄을
닮은 화사한 가방을 들어야 할 때다. 가벼워진 마음만큼
아담하고 경쾌한 가방이라면 금상첨화.

에디터 박효성



민개한 수국 꽃을 빛나는 자개로
화려하게 표현해 우아하고 화사한
클러치백은 김용겸 장인과 황교준
디자이너의 협업 작품.



전통 꽃살 문양을 옷칠로 그려
고급스러운 멋을 더한 미니 크로스
백은 조명희 작가.



비느질 누비로 꽃 무늬를 새겨
넣어 한국적인 미를 표현한
클러치는 보량.

요즘 가방은 작은 사이즈가 대세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니 백의 트렌드가 올봄에는 그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솔더백, 박스백, 크로스 백, 벨트백 등 다양한 모습과 소재, 컬러를 선보이며 봄 패션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미니 백 스타일인 크로스백은 어떤 스타일의 의상에도 잘 어울려 포인트 아이템으로 부담 없이 매치할 수 있다. 손에 들고 다녀야 해서 미니 사이즈가 많은 클러치는 특유의 세련된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선호하는 아이템이다. 상자처럼 각진 박스 백은 심플한 매력과 귀여운 느낌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어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별한 스타일보다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은 솔더백이다. 어깨에 매거나 손으로 들 수 있고 특유의 단정한 느낌 때문에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전통 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머니를 닮은 드로스트링백이나 베킷백은 열고 닫기가 편하고 수납공간도 넉넉해 실용적이다. 예로부터 결혼, 돌잔치, 환갑잔치에는 각종 길상 문양을 수놓은 낭이나 주머니를 선물해 복을 기원했던 의미를 되살려 미니 백을 선물로 전네는 것도 뜻깊은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접기 기법'을 활용해 부채살
주름을 표현하고 선조들의 미적
감각을 더한 실크 소재 클러치백은
조하나 작가 by 예울.



모던한 기하학 패턴을 자개로
멋스럽게 표현한 육각 입체형 미니
솔더백은 조명희 작가.



드로스트링 스타일의 주머니 디자인
클러치백. 캐멀 컬러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줄이 추가로 구성되어 크로스
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이미원다.



민트와 오렌지 컬러 조합으로 상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미니 박스백 솔더백,
벨트백 등 다양하고 유니크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마르헨제이.



'o', 'l' 형태의 조합으로 전통적인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응이
가방 시리즈 핸들백은 엄윤나 작가.



달항아리의 담백한 곡선과 기와의
반복되고 중첩된 이미지를 담은 미니
라운드 백은 일상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원이어퍼포먼스.



현대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
디자인이 돋보인다. 작지만 섬세하게
형태를 잡아 심플하고 우아하다. 달튼.



사랑스러운 물결 모양의 디자인과
화사한 스카이 블루 컬러가 설렘이
일렁이는 봄의 느낌과 닮은
클러치백은 LWL.



4겹의 아코디언 바디와 악어무늬 패턴
골드 핸들의 고급스러운 조합이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하는 딥그린 컬러의 미니
박스백은 마지셔우드.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가
잠재된 피부능력을 끌어올려 매콤 더 건강한 피부로
기꾸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60ml | 97,000원대 |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LTD)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이 미세양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진주 별란상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김은 흙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서 촉촉하게 미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벌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얕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미미로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윤조 퍼펙팅 라인



윤조에센스 퍼펙팅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가 잠재된 피부
능력을 끌어올려 매콤 더 건강한 피부로
기꾸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LTD)

에센셜 퍼펙팅 라인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만연하게
보호해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주는 영양
에멀전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만연하게
보호해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주는 힘을 높이고
영양을 공급해 사계절 편안하고
문제한 피부로 가꾸주는
탄력영양크림

125ml | 63,000원대

수분영양크림
메미른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전달해 꽉 찬 보습으로
속갈김까지 캐어해주는
사계절용 수분영양크림

75ml | 110,000원대

50ml | 70,000원대

진설명작 라인



진설명작에센스

고귀한 영지버섯과 액티브인
삼설™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
의 에너지가 절정의 피부 아
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
지 안티에이징 에센스

40ml | 800,000원대

진설명작크림

고귀한 영지버섯과 액티브인
삼설™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
의 에너지가 피부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프레스티
지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800,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반응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애辱전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밀한 인삼 애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전시나노피어™가
꽉 찬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미세 캡슐 전시나노피어™가
꽉 찬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에센스미스트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미세 캡슐 전시나노피어™가
꽉 찬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8ml | 75,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애너지 힐링 헥사펩타이드
주름 피부에 양광 운기 장벽
케일로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파이오일
주름 피부에 힘을 더해
탄탄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페이오일

60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경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애너지 힐링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경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애너지 힐링 크림

60ml | 12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강력한 인삼 결경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애너지 힐링 마스크

5ml | 12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매희의 향산화 애너지가 눈가 피부에
의한 다녀나쁨과 노화의 징후를 해제해
한한 눈가로 기꾸주는 생기 단역 에센스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희의 향산화 애너지가 눈가 피부에
의한 다녀나쁨과 노화의 징후를 해제해
한한 눈가로 기꾸주는 생기 단역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아이크림
매희의 향산화 애너지가 눈가 피부에
의한 다녀나쁨과 노화의 징후를 해제해
한한 눈가로 기꾸주는 생기 단역 아이 크림

20ml | 100,000원대

설린크림
매희의 향산화 애너지를 담아 외부
위해 요인과 내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단역 크림

50ml | 15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화학 피부로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천 피부를 정돈해주고
미백 톤업을 끌어올리는
젤 디瑕 브라이트닝 스키н

125ml | 65,000원대

자정액
피부 위로 촉촉힘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마스크
백삼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아름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210,000원대

자정마ックス팟트리트먼트
기미·잡기 생장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소麦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마스크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모풀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반응을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삼 성분을 담은 젤
모풀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반응을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탄력감을
피부 반응을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ml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자외선 위험환경 자주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30ml | 60,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자외선 위험환경 자주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50ml | 85,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건강 미백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적송과 복령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리필 334,000원대)

진설우액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건강 미백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고농축 적송과 복령 성분을
담아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이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송과 복령 성분을
담아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이에센스

60ml | 470,000원대
(리필 413,000원대)

진설크림
고농축 적송과 복령 성분으로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한방 일침 이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리필 413,000원대)

진설마스크
고농축 적송과 복령 성분으로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한방 일침 이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크림
사원한 자연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기꾸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명의분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태한 피부로 기꾸주는
8주 케이 이에이징 앰플

8ml×4 | 200,000원대

바디 & 헤어



트래블 키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들다운 향과 섬세한 텍스처가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 감각적인 바스 퍼퓸을 선사하는 럭셔리 트래블 키트
(헤어 앤 퍼퓸, 허어케어 세트, 바디워시 바디로션)

50ml x 4 | 55,000원대



동백윤모오일
자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로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
● 청향 ● 백은향 ● 금윤향 ● 흥과향 ●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를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들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핸드워시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를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들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대



바디로션 백은향
매희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매희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워시

250ml |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анс하는
메이크업 밸런서

35ml | 65,000원대

CC



CC 유액(SPF 34 / PA++)
매끄러운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펴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35ml | 60,000원대

컨실러 스틱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펴져 있는
결점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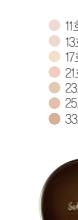
5g | 40,000원대

쿠션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퍼펙팅 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피부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방글 메이크업
듯한 신선품질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파니시 파우더



파우더 포 쿠션
피부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방글 메이크업
듯한 신선품질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

8g | 65,000원대

퍼팅 라인



퍼팅 쿠션(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볍고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미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리필 30,000원대)



퍼팅 파운데이션(SPF 17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35ml | 70,000원대



퍼팅 스킨커버 (SPF 26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한 윤기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14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퍼팅 트윈케이크 (SPF 30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하게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11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퍼팅 파우더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20g | 65,000원대(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자정 에센스BB(SPF 50+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하게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SPF 50+ / PA++++)
허루 중일 숨 쉬듯 만연하면서도 완벽하게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키케어링
파운데이션

9g |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



шу어 레스팅 메이크업



진설 메이크업



아이브로우

립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습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레디언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향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2020 스프링 리미티드

15g x 2 | 65,000원대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15g | 40,000원대



설린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아이크림 기획세트

20ml | 100,000원대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60ml | 90,000원대



자음수 랜턴컬렉션

120ml | 150,000원대



자음유 랜턴컬렉션

125ml | 57,000원대



자음생크림

125ml | 63,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포레이

60ml | 250,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포레이

15ml x 2ea | 120,000원대



매화지향 향초

200g | 100,000원대

MEN



리프레싱 클렌징폼
자연 유래 퍼퓸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결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본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개어주는 워터 젤
티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운유액
남성 피부 특별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개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남성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40ml | 90,000원대



콜레깅 UV 프로텍터(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흥삼 앰플

50ml | 40,000원대



예생분앰플
천성화 흥삼이 혈행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흥삼 앰플

20g x 30 | 170,000원대

홀리스틱 케어



궁중비누 - 소나무
청량한 소나무 향이
미음과 피부를

100g | 25,000원대



궁중비누 - 홍삼
깊은 흥삼 향이
피부를

100g | 25,000원대



궁중비누 - 살구
상그려운 살구 향이
피부를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NEW 윤조에센스(5명)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베이터™가
피부 노화 요인을 조회롭게 켜어해 잠재된
피부 능력을 깨워주는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입니다. 단 1병의 사용으로도 매일 더
건강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깊게 흡수되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탄탄한
피부 비단을 선사합니다.



상백크림 NO.1 크리미 글로우(5명)
자외선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동시에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입니다. SPF50+ /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로 높은 방어력과 함께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텍스처가 촉촉한 윤기로 마무리되고
편안하게 밀착되어 광채 피부를 연출합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20년 6월 10일까지
증정 선물 윤조에센스, 상백크림 NO.1 크리미 글로우
당첨자 발표 2020년 여름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20년 겨울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진설명작크림(1명)

최수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2길

설린아이크림(5명)

박효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손순옥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신윤정 강원 춘천시 동사면 춘천순환로
천상우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최미리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READER'S REVIEW



눈부시게 쓸어지는 천만한 희망

설화수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윤조에센스입니다. 2020 New Year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매혹적인 옷을 입었네요. 무척 아름다워서 꼭 소장하고 싶습니다.
—최미리(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만두꽃이 피었습니다

만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손수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소개된 레시피 중 하나를 선택해 딸고 엄마와 둘러 앉아서 만들어보려 합니다.
—최수란(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2길)

2020년 겨울호 당첨자 선물은 4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자음액티베이터™로 타고난 피부 능력을 깨우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최적의 황금비율로 완성된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자생력은 물론 피부 표면의 생태계까지 강화합니다.
이제, 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설화수 피부 과학의 결정체 자음액티베이터™

더 강력해진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노화를 총괄하는 스킨 마스터 팩터(Skin Master Factor)를 통해
피부 표면의 생태계를 강화해 피부 건강 지수*를 146% 개선합니다.
이것이 설화수만의 유스마스터테크놀로지입니다.

*피부 건강 지수(Skin Youth Index) : 설화수의 피부 개선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피부노화 6가지 지표 (수분량/윤기/투명/주름/피부빛/피부장벽) 기반의
도입 인터에이징 지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표준점수/개선 전 피부100 기준)

Sulwhasoo



Special Gift

업서를 보내주신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봉합엽서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롯데백화점 관악점 02-2143-7192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02-2673-2133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2379-126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인천광역시, 경기도

롯데백화점 인천더미널점 032-242-2139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롯데백화점 증평점 032-320-7135
현대백화점 증평점 032-623-2136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현대백화점 카이스트점 031-822-3140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65-1282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031-5174-7141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현대백화점 을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대구백화점 프리미엄점 053-426-6036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롯데백화점 산인점 053-258-3106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뉴코아이몰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편치다

설화지혜(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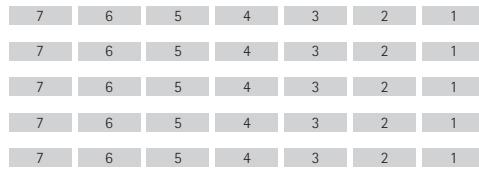
피부 섬기기(12p)

新 장인을 만나다(18p)

공간미감(24p)

전나다(30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8p)

어우러지다(46p)

설화풍경(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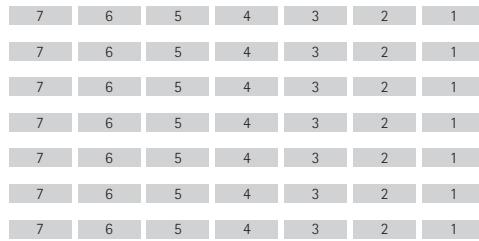
설화보감(56p)

아름다운 기행(62p)

설화수를 말하다(68p)

설화공간(74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한국의 멋(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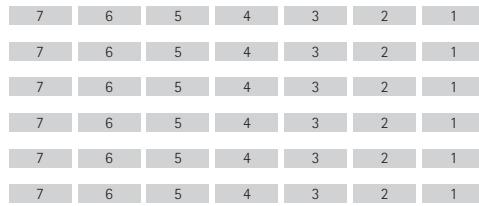
설화애장(84p)

읽다(86p)

집 안 단장(90p)

몸 단장(92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마이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윤조에센스□

상백크림 NO.1 크리미 글로우□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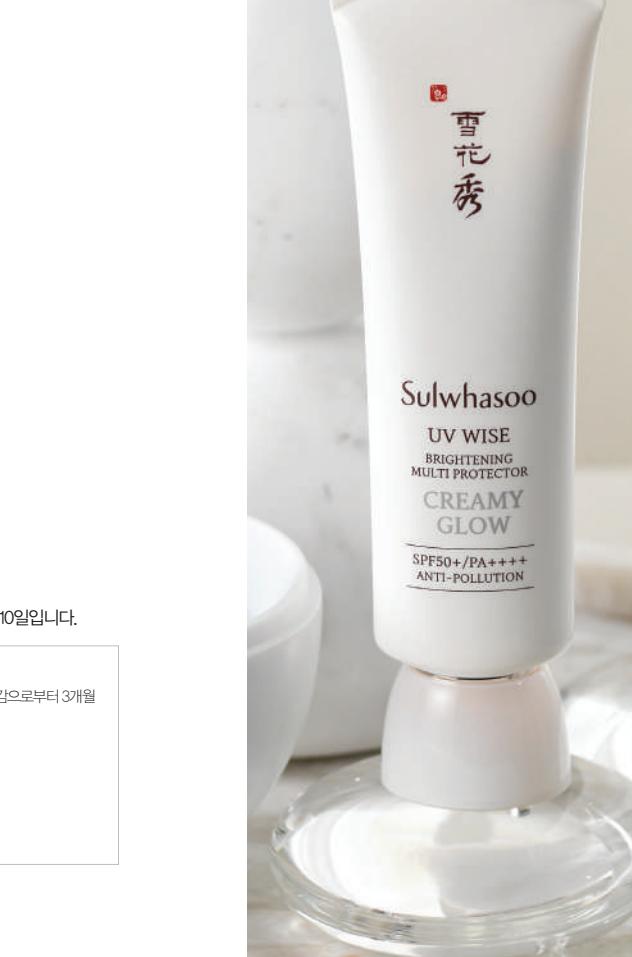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봄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6월 10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로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로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로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기아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9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징중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파로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윤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우한공항 면세점 탐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032-743-6567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현대 동대문 면세점	02-3668-8124